



時 計 塔

SIGETOP



2005년 1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2권 1호

142-04 Bayside Avenue, 10U A, Flushing, NY 11354
e-mail: 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李 漢 中
편집인: 金 炳 哲

편집위원: 徐 亮
徐 仁 錫

자문위원: 盧 鎔 冕 李 熙 景
許 善 行 宋 寬 鎬

신년사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동창회

미주동창회장 이 한 중(65)



2005년의 새해아침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후배, 동기여러분, 한분 한분 가정에 신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동창회를 항상 생각 해 주시고 후원 해주시는 덕분에 The State of SNUCMAA of North America는 여전히 건전하고 힘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주동창회는 30여년의 전통을 밑거름으로써 성숙하여 이제는 golden age의 하루 하루를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미주서울대학 단과대학 동창회들중에 가장 모범적인 동창회일 뿐아니라 이 미주땅에 이식된 의과대학 동창회로서는 가장 독특하고 성공적인 동창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 우리동문 1200명 한분 한분의 이 미주의 개척자들로서의 자서전을 써보면 1,200권의 best seller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항상 믿어왔고 그리하여 우리 동창회는 동문 한분 한분을 존경하고 아껴서 우리 하나 하나가 이 땅에 심어놓은 꿈들의 씨앗들이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일에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동창회 사명들의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시계탑을 항상 이용 해 주시고 우리들의 능력있는 사무장 김혜경씨를 통해서 수시로 연락 할 일들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website가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민경탁(65)동문이 시계탑에 발표했던 우리 동창회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훌륭한 아이디어 들에도 동참하여 여러가지 group activity가 우리 동창회 이름으로 진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05년 3월 9일(수요일) 부터 3월 13일(일요일) 까지 올랜도에서 있는 우리들의 Convention에는 부디 겨울휴가삼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창회비를 매년 잊지 않으시는 여러 동문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계속하는 한 우리 미주동창회는 계속 우리들과 함께 건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회장단들은 은퇴하신 동문들이 해마다 늘어가는 이즈음에 우리 동창회도 같이 발맞추어 conservative 한 annual budget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국의 동창회와는 달리 우리 미주동창회는 우리들만의 이 미주에서의 현실을 항상 직시하여 항상 충실하게 미주동문들을 계속 serve 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올랜도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고대하면서 새해에는 여러분들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신년사

미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여러분께

본국동창회장 이 길 여(57)



존경하는 미주 동창회원 여러분,

새 아침이 힘차게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서울의대인은 함춘동산에서 모교의 창학 정신인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를 가슴에 새기며 모교와 조국의 발전을 담대하게 준비해 왔고, 이제는 거목(巨木)으로 성장해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면서 조국의 영광을 구현하는 국제적 책임을 훌륭히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멀리 이국만리에서 모국의 의학발전과 겨레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뛰어난 지 도력을 보여주고 계신 이한중 미주동창회장님과 역대 회장님, 그리고 미주 지역 곳곳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신 선후배 여러분 모두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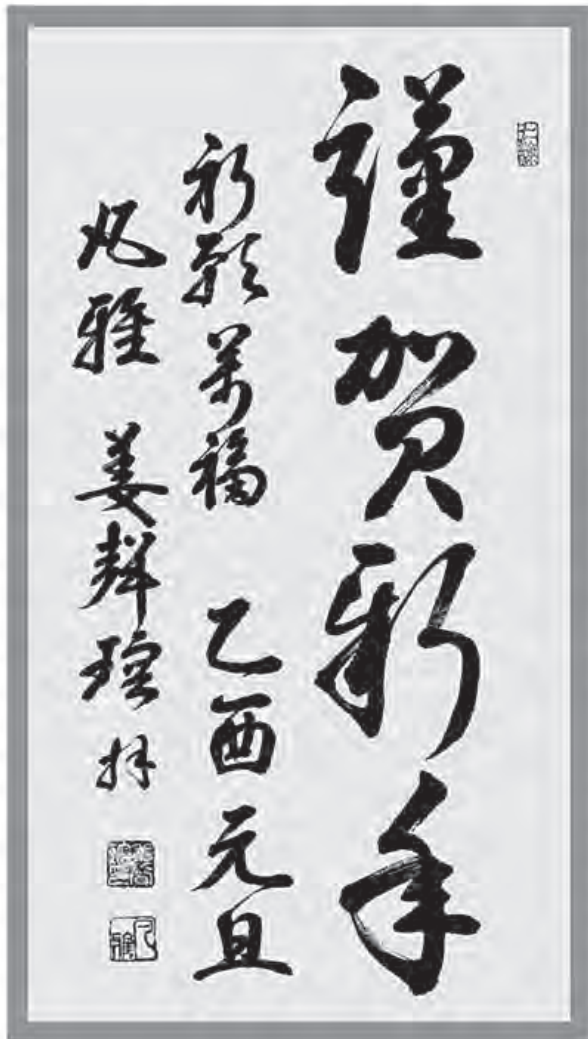
경애하는 동창회원 여러분, 우리 동창회는 지난 한해 내실을 기하며 여러 현안 사업들을 힘없이 추진하여 보람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속의식(共屬意識)을 다지며 동창회의 위상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정기행사는 물론 함춘회관 운영 수익금으로 회원들의 해외연수비를 보조해주는 한편 학술연구재단의 기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모교 도서관에 교과서와 전문서적을 기증했습니다. 또한 장기려 박사님의 뜻을 기리는 제1회 장기려의도상을 제정했으며, 우수한 연구업적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기금 줌소리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많은 동문들이 힘을 한데 모으면 커다란 별처럼 밝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동문간의 두텁고도 뜨거운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모교의 명예와 긍지를 지켜야 하는 소명(召命)과 당위(當爲)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미래를 말하지 않는 나라가 발전한 예(例)는 없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볼 때 더 크고 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우리나라 장래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모국이 제대로 된 국격(國格)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동창회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가 조국 앞에 무한 책임이 있음을 거듭 다짐하는 해가 되도록 합시다. 조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서울의대인답게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조국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한마음으로 나서주길 기대합니다. 국내 회원들도 우리가 자란 명예로운 모교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는 데 전심전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희망 속에 새해를 맞이하는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도 미주동창회 연례 학술대회

2005년도 제22회 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주동창회 연례학술대회는 관례대로 매년 7월초에 열었으나 더욱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기대하는 바램으로 2005년에는 3월초에 후로리다 올랜도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각 동기회에서는 동기모임들도 함께 갖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05년 3월 9일(수) ~ 3월 13일(일)

장소: Renaissance Orlando Resort at Sea World, Orlando

총무 이 태 석(67)

회장 이 한 중(65)

신년사

큰 발전을 위해 작은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으로

모교 학장 왕 규 창(79)



희망찬 2005년 새해에 서울의대 동창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2004년 우리 의과대학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는 여러 가지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원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위화감을 촉발하는 특정 집단 형성의 주범으로 서울대학교가 지목되고,...

새로이 개선 중인 의학교육체계는 아직도 지속적인 제도 수정을 요합니다. 제한된 장학재원은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울의대와 졸업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개편하여야 하고,...

대학은 공간과 자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이 변경된 부지에 의생명과학관이 순조롭게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기존의 공간도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재배정하고 공개성을 도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비전을 정리하고 서로 이해하며, 큰 발전을 위하여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 서로 협력하는 마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동창회, 대학본부, 병원, 관계 기관과 단체, 그리고 서울의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보여주시는 관심과 격려, 따뜻한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도 동창 여러 선생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신년 인사를 올립니다.

주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난번 시계탑과 Convention Brochure가 반송되어 왔습니다. 아래 동문들의 주소나 연락처를 아시는 동문은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명(46) 김이진(50) 최형종(50) 최영수(51) 김영섭(52) 박학도(55) 민병각(56) 김필영(57) 박영호(57) 강갑년(58) 박상해(58) 이상문(58) 강충훈(59) 박충건(59) 최의필(59) 현 원(59) 김국민(60) 최홍락(61) 박호성(61) 장성환(61) 장태환(61) 김종빈(62) 손영진(62) 김재종(63) 김현철(63) 선종철(63) 윤진수(63) 이종민(63) 전원상(63) 김정권(64) 송원길(64) 이종오(64) 한태진(64) 강형욱(65) 김명자(65) 이화성(65) 홍종영(65) 김순균(66) 설원종(66) 정세연(66) 김명원(68) 정경일(68) 박경일(70) 박홍식(70) 최광택(70) 김동엽(71) 이사구(71) 하준영(71) 이지우(72) 정수만(72) 박진섭(73) 한중수(74) 윤태현(75) 김병울(76) 윤준기(77) 김선웅(78) 조경구(78) 양승철(79) 안영국(80) 송주호(81) 진관보(82) 서예경(88)

2004-2005 회비 납부하신 분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1월 7일 까지

- 41: 이규용 47: 장석주
48: 장석철 한용현 49: 고영철 김지익
50: 나수섭 이철남 주 일
51: 곽 흥 박준홍 오정희 이상하
52: 김은태 김정준 김호연 이봉기 전병규
53: 김형건 정약훈 54: 김갑균 이동식
55: 김용선 노용면 박병원 서경만
56: 김신형 박상기 서상철 손종수 신명수 윤신원 이연찬 조동립 주창준
57: 강영섭 김양호 김용진 김일훈 동형근 박건호 유상환 윤 찬 이동성 이민자 이하길 임종식 정구영 정진복 정희영 한성택 황대연
58: 김기태 김백년 김수산 김숙희 김시한 김해암 노인규 박창희 박호현 배영섭 신상균 이동욱 이만택 이상설 이운순 이장섭 이종국 이종용 정순일 최정희
59: 김교안 김병구 김병석 김용덕 김은섭 나길진 박형돈 서경화 신영철 신한수 심충섭 유태준 윤만중 이교라 이영모 이원호 임낙중 임원기 정태진 최용천 최종진 최혜숙 한달수
60: 김문경 김원주 김인환 김재정 김주택 김택경 박병근 박정우 송영조 엄도승 염극용 우병혁 이광준 이상일 이순환 이종석 이효빈 임종원 임필순 조재동
61: 강창욱 고의걸 김영기 김영철 김유홍 김화섭 박승균 박장생 박준환 손기용 손주현 안창현 이재두 이재승 이희백 이희경 정의철 정철용 조은순 최용성 홍창기 황현상
62: 강광원 구정용 권익현 김석식 김재흠 김한중 김호균 남성희 박종건 박진수 박찬형 박태진 문상규 송용두 오태요 이경욱 이기범 이상무 이상복 이상원 이선택 이몽길 장순필 장한순 정정수 정훈일 조명호 조 용 한상호
63: 고영희 김갑중 김광섭 김승태 김태웅 김택수 김충열 노인규 박병학 박세록 마동일 송용덕 신영규 양찬기 왕규현 윤명규 윤영섭 윤영욱 이기환 이능석 이범세 이병준 이승현 이흥빈 임춘수 장세곤 조열하 조한원 하상태 한광수 한기현 선우건영
64: 권정덕 김용두 김태환 라찬국 박세준 박한영 방효준 송관호 신두식 안연승 양운택 유 강 오덕걸 오태희 유 강 유광현 윤흥기 유창남 윤흥기 이길수 이용만 이유찬 이재풍 이정은 이정필 이종섭 이주영 이진웅 이홍표 임대륙 임병훈 전희택 정유석 정인태 조성준 최준희 허선행 홍선경 박성민
65: 강길원 김대인 김옥현 문형성 민경탁 박수안 백해태 서좌일 서홍석 손광호 신백효 안경식 이범석 이정희 이재진 이종희 이한승 이한중 장재찬 전영균 정길화 조성구 채도경 채무원 채 진 최영인 최제근 한원민 한재은 홍수웅 황규정
66: 궤일성 김강길 김용재 김우신 김의신 김충규 남궁승 박용길 박준석 민발식 심정섭 이 룡 이명희 이서근 이영일 장한교 정양수 조의열 조충열 최순채 한일성 허서룡
67: 강명식 경우현 김동수 김명선 김상복 김성철 김영곤 김영철 박종민 방정화 문경용 우준균 유 달 유진일 육태식 이근용 이민우 이소희 이진수 이태석 이태안 임 번 지일성 최무용 최승용 최재홍 최창식 한영수
68: 김성열 김영남 김주평 김진홍 김 철 김희주 박정식 서관우 서운석 서진석 송창호 안세현 이건일 임공세 차재철 최 철 홍광신
69: 김영일 김윤성 김재욱 김창남 김홍서 도상철 박수웅 변영석 서 랑 서만길 송기인 송용재 안병일 엄규동 육순재 윤효윤 이승공 이흥호 이치훈 임용규 전덕성 최종일 최종진
70: 김광현 김일근 김형달 방준재 문성길 여준구 이명상 이종성 인정길 장극기 조경호 조남현 조영갑
71: 강유규 강창홍 강태수 고기영 김성환 김제홍 김유식 김효순 김 훈 노재홍 박동수 박상호 배성호 서정자 송창기 오동환 이원택 장 철 정인용 조병선 조세진 최수강 최영철 홍성진
72: 김재석 박명영 오용호 이신재 이정민 장병호 최인섭 황용규
73: 나두섭 문대욱 민인기 서인석 심완섭 이계석 이영복 임준형
74: 권철수 김용진 이진현 이홍제 최태식
75: 김명호 김원정 김자익 전경배
76: 김승관 박세화 유영걸
77: 강준희 최호준 78: 김동수
83: 심인보 85: 임하진
이상 427 명

2004-2005장학금 기부하신 분(2004년 7월 1일 ~ 2005년 1월 7일)

- 김신형(56) 100 박병근(60) 75 박승균(61) 100 황현상(61) 75 박태진(62) 200
이기범(62) 100 조 용(62) 100 왕규현(63) 100 임춘수(63) 100 한기현(63) 100
이재풍(64) 100 임병훈(64) 100 이한중(65) 200 박준석(66) 100 김주평(68) 75
김진홍(68) 50 이건일(68) 500 박수웅(69) 200 이승공(69) 200 전덕성(69) 100
최종일(69) 100 여준구(70) 100 김유식(71) 75 김효순(71) 125 배성호(71) 100
서정자(71) 100 장 철(71) 75 정인용(71) 100 최수강(71) 100 김용진(74) 100
김자익(75) 100 유영걸(76) 15 Total \$ 3,765

2004-2005 Green Project 기금 기부하신 분(2004년 7월 1일 ~ 1월 7일)

- 김호연(52) 50 김교안(59) 100 염극용(60) 100 이선택(62) 75 임춘수(63) 100
이한중(65) 100 궤일성(66) 75 김성열(68) 300 김진홍(68) 50 이건일(68) 500
이승공(69) 200 이원택(71) 50 정인용(71) 100 조경호(72) 75 서인석(73) 100
김용진(74) 100 Total \$ 2,075

2004-2005 Donation 하신 분(2004년 7월 1일 ~ 2005년 1월 7일)

- 최용성(61) 75 한광수(63) 75 민경탁(65) 100 이한중(65) 100 천양곡(69) 200
정인용(71) 100 Total \$ 650

서울의대/미네소타대학 교환프로젝트 50주년행사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와 미네소타 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서울의대/미네소타대학 교환 프로젝트 5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1월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 미네소타 대학에서 거행됐다. Stem Cell Research 심포지움이라는 제목아래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는 모교의 황우석 동문, 그리고 문신용 동문이 이 주제 토론을 하고 미네소타 대학의 Stem Cell 연구팀이 여기에 참가했다. 또한 이종욱 모교 전학장의 지난 50년간에 걸쳐 변해온 서울대학교 발전상에 대한 강연과 한승주 주미대사의 축사도 있었다. 15일 저녁에는 서울대동창, 미네소타 한인사회 그리고 미네소타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이 미네소타 대학 동창회관에서 열렸으며, 16일에는 황우석 동문 그리고 문신용 동문들과 미네소타 대학 Stem Cell 연구팀 사이에 학술 토론이 있었다.

서울대학교와 미네소타 대학간의 교환 프로젝트는 1954년 미연방정부의 Office of Economic Cooperation(OEC) 부터 미네소타 대학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한국의 서울대학교를 원하는데 쓰는 grant를 타내면서 시작되었다. 1956년 3월부터 1961년 사이에 77명의 의대교수를 포함한 약 200여명의 서울대 교수가 미네소타 대학을 다녀갔고, 11명의 미네소타 대학 교수가 서울에 파견되었다고 한다. 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입은 단과대학은 의대, 간호대, 농대, 공대 및 수의과 대학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와 미네소타 대학의 관계가 시작되지 50주년이 되는 현재 두 대학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작년부터 미네소타 의과대학에서 시작한 International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 Program을 통해서 미네소타 의대생과 서울의대생간의 교환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서울의 동문들이 5만7천달러를 기부했고, 이번 행사를 위해 서울의대미주동창회에서도 5천달러의 비용을 보태주었다.

서울대학교/미네소타 대학 교류 프로젝트는 전쟁후에 폐쇄되었다. 서울대학교 재건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후에 많은 미네소타 대학출신의 지도자를 배출시켜 한국의 발전에도 한 몫을 하게 되었다.

미네소타 대학으로서는 서울대학교와의 관계가 그 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대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역사적인 일이었다. 후에 이루어진 서울대 및 한국의 발전상을 보며 무척 고맙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기네 대학이 한 일중 제일 보람있는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 김태환(64)보고

서울의대 동창회, '장기려 의도(醫道)상' 제정

서울의대 동창회(회장 이길여)는 학문적 열정과 이웃사랑으로 일생을 헌신하고 장기려 박사의 업적과 정열을 기리고 이웃사랑 실천과 헌신을 북돋우기 위해 참 의사의 도리를 널리 일깨운 동창회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장기려 의도(醫道)상'을 제정, 첫 번째 수상자로 김인권 여수애양병원장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2월 6일 합춘회관 가천홀에서 열린 합춘송년의 밤 행사에서 이뤄졌다. 서울의대 학생시절 소록도에 실습을 가면서 한센병 환자들을 처음 접한 김인권 원장은 1980년 공중보건의로 소록도에서 자원 근무했으며, 20년 넘게 치료한 지체장애자, 한센병 환자 등은 20만명을 훌쩍 넘는다.

권이혁 전총장 뉴욕방문 축하모임

뉴욕을 방문한 권이혁 모교 전총장을 모시고 지난 10월 20일 뉴욕방문 축하모임을 플러싱에 소재한 영빈관에서 가졌다.



사진은 축하모임에 참석한 뒷줄 좌로부터 이명희(66), 민병덕(59), 서인석(73), 추재욱(63), 이희경(61)동문 앞줄 좌로부터 노용면(55) 이규용(41), 권이혁 전총장, 최원로(48) 동문.

- 이규용(41):** 지난 11월 14일 만 88세를 맞이하여 생일축하 가족모임이 있었다.
- 박근수(49):** 새로 이사하셨다. 1876 N, Eagle Cahse Drive, Hormado, Fl 34442 전화는 (352) 527-3659
- 노인규(58), 정정우(66):** 지난 11월 6일 뉴햄프셔에 있는 무료 건강진료 행사에 참가하여 봉사활동을 했다.
- 임대복(64):** 뉴욕 스케넥타디에서 소아과를 개업하고 있는 임동문의 아들 데이빗군이 지난 1월 15일 메릴랜드 벨티모어에 있는 메릴랜드 크립에서 결혼예식을 올렸다. 데이빗군은 하버드를 졸업하고 잔스합킨스에서 내과 레지던트를 하고 있고 신부 예미 김양은 MIT 출신 건축설계사로 벨티모어에서 활동하고 있다.

동창회비 납입

Annual Dues & Contributions (July 1, 2004- June 30, 2005)

MEMBERSHIP DUES	\$125.00
HAMCHOOON ALUMNI-HALL FUND	\$
SCHOLARSHIP FUND	\$
DONATION	\$
TOTAL	\$

Name: _____ Class: _____

Please indicate your local chapter.
Please make your check payable to S.N.U.C.M.A.A.
Your Dues and Contributions are Tax Deductible.

Please call (718) 888-2622 or Fax, (718) 888-2608 if your address has changed.

송관호 동문 '자랑스런 서울의대인'에 선정

지난 10월 13일 모교 3층 강당에서 모교와 본국 동창회가 주관한 제14차 동창의 날 행사가 거행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송관호 동문과 모교 내과교수 김노경 동문이 올해의 '자랑스런 서울의대인'으로 선정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길여 회장을 비롯하여 동창회 임원진과 왕규참 학장, 성상철 병원장, 이문호 명예교수를 위시하여 여러 교수, 교직원들과 많은 동문들이 참석했다. 이어서 송관호 동문과 김노경 동문의 인물사진이 동창회 합춘회관에 헌정되었다.

송관호 동문은 본회 미주총동창회 회장(97~98), 미주한인의학협회 회장('00~01)을 역임한 바 있고 특히 동문이 1985년 NYU-Rockland 정신병원에서 시작한 Treatment Mall 치료방법은 지금 전 세계에서 정신병 치료에 이용되고 있으며 정신의학계의 많은 관심과 영예를 받고 있다. 동문은 1988년에 뉴욕주지사로 부터 '병원 최고관리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사진: 이길여 회장으로 부터 상패를 받는 송관호 동문.

시카고지역 동창회 소식



"선생님께서는 너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닥터 전영식께서, 김윤범 선생님과 함께 다녀온, 북한의료선교에 대한 말씀을 시작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북한의료선교는 매년 선생님께서 주동하시어서, 많은 의료품들과, 의료진들이 가서, 북한에 의료진들을 돕는 사업하는 행사입니다.

다. 지난 십년동안 7 백만불 상당을 모금하였고, 특히 선생님께서는 북한에 의과대학교수진들에게 교육을 담당하시었습니다.

제가 특히 잊을수 없는 이야기는, 일행이 많은 결핵약을 매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친동생께서 결핵약을 못드시고 계신것을 아시고, 이번 길에는 따로 싸가지고 가셔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조금도 실망하시거나, 화내는것이 없으시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사업을 하시기를 구상하신다 합니다.

이번에 무균돼지를 한국에 기증하시어서, 한국의 의료발전에 기여하시자는 동포에 또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월 31일, 할로윈날에 시카고 서부 교외에서 있던 축하만찬의 다른 순서로는, 김일훈(57)동문께서 이제까지 "자랑스러운 서울의대인 상"을 받은 분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노재욱(64)동문께서 선생님의 약력과 연구업적에 대하여, 동시에 시카고 동문들과 친지들이,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모습을 슬라이드로 보여 주시었습니다.

축사는 닥터 이용락(전 미주총동창회장), 닥터 강영국(시카고 총동창회장)께서 해주셨습니다. 닥터 강께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빌려서, "What do you want? Today is your day." 라는 말씀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자녀들이 어렸을적에, 일요일날은 꼭 아이들, 그리고 부인과 함께 하는것으로 작정하셨답니다. 그리고는 매 일요일 아침이면, 자는 아이들을 깨우면서, "Today is your day. I'll do anything for you. What do you want?" 하시면 아이들은 잠을 더 자려고, "Go away! Leave me alone!" 하였답니다. 그러면은 잘 되었다 하고, 연구실로 가셨다 합니다.

또한 항상 돼지를 돌보다 보니까, 주위의 동네사람들이 돼지 Farmer로 아셨다고 합니다.

이날의 만찬은 배영섭 동문의 식사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미주총동창회 오회장님께서 보내주신 큰 화환이 자리를 환히 장식한 가운데, 일식과 함께 선생님께서 "한잔 내신다" 하셔서 귀한 불란서산 와인을 이날 모인 많은 동문들이 즐기는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한상호 선생님이 건배를 주도하시어서 모두들 "Dom Perignon"을 높이 들고 서울대학교의 더 큰 발전과 동창회의 발전과, 선생님의 건강과 더 많은 일 하시기를 바랬습니다.

정재욱 여사 수필집 발간

송관호(64) 동문부인 정재욱 여사의 두번째 수필집 '뉴욕의 황진이'가 지난 8월 25일 '시문학사'에서 발간되었다. '뉴욕의 황진이'는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국민도서목록에 등록된 작품으로, 285쪽에 60여편의 주옥같은 글이 실려있다. '한국수필'을 통하여 한국 문단에 등단한 정재욱 수필가는 미동부 한국문인협회장을 역임하였고 2003년 제1회 해외 한국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신광승 동문 영전에

이 회 백 (61)

광승아

마포 새우젓이라고 없입받든 나와 청량리 똥파리라고 놀림받든 내가 맞난 해는 해방된지 2년 후인 1947년이였다. 수재만이 모였다고 듣는 학교이기에 누구나 수재였지만 너는 수재중의 수재였다. 특히 어학에 뛰어났었다.

학병으로 나가 일본 히로시마에 있다가 원자폭탄 세례를 받고도 살아나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선생 생각나나? Thomas Hardy의 Tess of the D'Urberville 을 교재로 영어를 가르치던 그가 어느날 여러분들은(그렇다 그는 우리들을 너희들 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러분들 이라고 불렀다.) 지나가는 여학생의 스커트가 천사의 옷자락으로 비칠날이 곧 올것이라고 하던 그 다정 다감하던 선생 말이다. (소문에 의하면 이 선생은 동란중 그가 이끌던 소대가 인민군에게 포위되자 대원들에게 어떻게 할것인가 묻은것이 화근이 되어 즉결 총살 당했다고 한다).

이 영어 선생이 하루는 (삼학년 때가 아닌가 한다) 수업끝에 질문을 던졌다. "그는 옛날의 그가 아니었다" 를 영어로 표현 할수 있는 사람 앞에 나와 칠판에 써보라는 것이었다. 아마 Tess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을 염두에 두고 한 질문 같다. 그래 내가 손을 들고 나가 "He is not who was" 라고 썼다. 칠판을 쳐다보든 선생이 "오늘은 이회백에게 박수를" 하고는 수업을 마쳤다. 내가 으쓱했든건 불문가지다. 그런데 교실을 나서는 나에게 내가 다가와 "너 틀렸어"하고 찬물을 끼얹었다. "He is not WHAT he was 해야 맞지" 하는 것이었다. 한대 얻어맞은 기분인 내가 반론을 펼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찌지만 별 도리가 없어 손을 들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던 얼마후 김동인의 작품이 화제에 올라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의 작품 "젊은 그들"을 너는 영어로 뭐라고 할것이나고 내게 물었다. "Young They" 문자 그대로의 내 "직역"을 듣자 그럴줄 알았다는듯 금방 "They, The Young 으로 하는게 가장 합당해" 하는 것이었다.

아마 너는 기억치 못할꺼다. 너로선 대수롭지 않은 일이였을테니까, 그러나 나로선 대단한 일이여서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영어뿐만 아니라 너는 독일어도 능통했다. Goethe 의 Faust 를 읽고 있는 너를 본 적이 있다. 그뿐인가? 너는 음악에도 재주가 비상해 특히 violin을 잘 켜서 삼년전 네 집을 방문했을때는 나를 위하여 여러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 나를 즐겁게 해준 너였다. 그게 네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들려준 곡이 되고 말았구나. 이 세상에서는.

너와 나는 무슨 인연이였는지 똑같이 고등학교를 2년 늦게 졸업했다. 육이오 덕분에. 또 같은 예과를 들어갔고 대학도 같이 졸업했다. 서로 짝적도 없는데, 나는 의사란 직업에 대해

별로 매력을 느낀적이 없고 의사에 대한 존경심이 별로 없다. 의사이면서도 정치가로 크게 활약한 손문, 아옌데, 서재필 같은 사람은 예외지만. 그런 내가 의과를 택한 이유는 별게 아니다. 일사후퇴때 행방불명된 우리 어머니가 너는 의사가 되어 내 병 고쳐주렴 하시던 우리 어머니의 생전 소원에 따랐다고 할까? 내게 물어본적이 없어 네가 왜 의과를 택했는지 알길이 없으나, 나와는 달리 어떤 확신이 있었을꺼라 짐작된다.

네 부친께서 하시던 시계포에서 부친을 도와 시계를 고쳐본 경험을 네가 이야기 한적이 여러번 있다. 정교한 시계를 수리하면서 더 고도의 기계인 인체를 고쳐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너와나는 육년이란 긴 세월을 한 대학에서 같이 지냈다. 문리대 예과에 다닐때 출중한 해군 장교였던 네 형 덕택에 네 여동생 승애(후에 이화대학 물리학 교수가 된)와 같이 진해 해군사관학교에 가서 논것 생각하지? 내가 멋도 모르고 다이빙이 거저 먹기인줄 알고 높은데서 뛰어내리다가 겁이나 주저하는 바람에 수면과 평행으로 떨어져 혼이 난 일, 하루종일 햇볕에 등이 타서 물집이 생기고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된 것을 코데인을 구해와 살려준 일.

졸업후 너는 해군복무후 곧장 미국으로 왔지만 나는 국내에서 수련을 마쳤다. 아무 일이 없었더라면 너와 나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살았을꺼다. 그런데 또 무슨 팔자였는지 이상한 일이 벌어져 나는 미국에 울수밖에 없었고 너와 나는 다시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너와 나의 공통되는 성격중의 하나는 여간해서는 자기 사정을 남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미국 올때 시카고에 들려 너를 만나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알리는 바람에 너는 모르고 출타. 못 만났던 것이 하나의 예이고 매년 오던 크리스마스 카드가 오지 않아 궁금해 하면서도 네게 묻지 않아 그 다음해에 가서야 내가 심장수술 받느라고 그랬다는것을 알게 된것이 다른 예이다.

너에 대해 "그 친구 동창회에도 통안 나타나고 만나기 아주 힘들어" 이런 소리 심심치 않게 들게되는 것도 같은 이유겠지? 너는 몸이 호리호리하고 담배도 안피우고 술도 안하니 누가 그런 이유가 있는줄 알았겠어. 나도 삼년전에 네 X-ray 보고서야 어떤 정도임을 알수 있었으니 말이다.

작년에 재 심장수술 결정이 되어 수술방까지 갔다가 최후 순간에 중지 결정이 되어 나왔다가 또 장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어 장수술까지 받았다는 깨알같이 쓴 장문의 네 카드를 받았을 때 읽는 내가 괴로웠다. 형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문의 편지를 힘들게 쓰지 않을수 없도록 만든게 내가 아닌가 해서. 더구나 네 처까지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있다고 했으니. 그래서 그후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런 사이 나는 삼십이년 이상 살던 집을 떠나 이곳에 왔고 너는 칠십평생 살던 이곳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가 우리는 다시 헤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나리라. 항상 그랬듯이, 다시 만나거든 더 가까이 지내자. 그리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 기이-르게 나누자. 그날 까지 잘 있거라 광승아.

너의 영원한 벗 회백이
참 부탁이 있는걸 잊었다. 아름다운 곡 많이 연습해 두었다가 만나는 날 들려다오.

박성유 형을 보내며

박 찬 형(62)

박성유 형 하늘에서 읽어보시오.

박형 어찌 이리 급히 가시는 것이오. 내가 김석식형(동기)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 놀라움 속에 가슴이 많이 아팠소. 지병인 심장박동 문제가 갑자기 발작하여 순식간에 큰 일이 일어난 줄 아오.

여러 일들이 회상이 되오, 박형과 나는 사실 중고등학교때보다 의과대학을 같이 다니면서 많이 친해지지 않았소. 박형의 특징은 성격이 너무 순수하고 순진하여 사실 자기 뉘도 남에게 양보하는 근래에 보기 드문 성인군자형이 아니오. 무슨말이나 하면, 나 같은 범인은 수물리면 싸운다던가 덤비기도 하고 필요하면 악하게 나올수도 있으나 박형은 그렇지 않지 않소. 어찌 하늘은 이토록 선량한 사람을 먼저 부르다는 말이오. 박형과 송영두형(역시 동기) 나와 함께 셋이서 서로서로의 집에도 놀러다니고 가족들도 알게 되어 여러가지 즐거웠던 일이 회상이 되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느라 애쓰던 생각이 더 나는 것을 금치못하겠소. 박형은 아주 기대가 크신 어머니 슬하에(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알음.) 세 여동생과 아담한 한옥에 살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오. 이 여동생들이 모두 다 미인이고 경기여고 출신으로 기억이 되오.

박형은 뉴욕에서 계속 있었고 나는 멀리 미국 중서부에 있어서 자주 만나는 못하였지만 (사실 이것이 항상 아쉬웠고 서로 은퇴하게 되면 자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오리라 기대했는데 이제 영영 그럴수도 없게 되어 정말 실망이 되오.) 간혹 소식으로 박형의 한 여동생은 일찍 사망하였고 또 한 여동생은 수녀가 된 것으로 아오. 제일 큰 여동생은 내가 뉴욕에 놀러갔을 때 박형과 같이 방문했던 일이 생각나오. 우리 의대선배와 잘 사시던 것을 보지 않았소(한용현 선배님 '48의 부인 박경희 여사). 사실 이번 일이 있고 박형집에 급히 전화했을 때 그 여동생이 많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소. 그 일이 일어난 일이 어찌 또 박형의 생일날이 었단 말이오. 그래서 이 여동생도 후로리다에 은퇴해 있다가 마침 오빠 생일 축하하러 왔다고 하지 않소. 또 한 사실은 이 지병 때문에 NY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많이 호전이 되어 막 퇴원해서 집에 와서 shower하러 들어간 다 하고는 나오지 않아 문을 부수고 들어가보니 아주 깨끗하게 shower 마치고 편안하게 앉아있었다 들었소. 한 가지는 이 일이 정말 급격히 일어난

일이라 무슨 지속된 고통 같은 것은 전혀 없었을 터이니 이 점 하나만은 좀 위로가 되오. 가족들도 다 평정을 찾은 것 같아 그것도 위로가 되오. 이 여동생도 여유를 찾고 나에게 학교 당시 내가 그 집에 놀러가면 내 별명이 무엇이였는지 알았나 묻지 않소. 내가 물론 몰랐고 그 별명이 혹시 '샌님'이 아니었을까 걱정했는데 실은 "너 그런데 말이야"라 하오, 내가 이 말을 많이 썼던 모양이오. 또 우리 동창회지 '경기 51회보'에 게재됐던 (2004년 봄호) 본인의 '암의 예방'에 관한 졸작을 언급하는 것을 봐서 동창 회보들이 동창 가족들에게도 많이 읽히는 것 같소.

그 후 물론 미세스 박과 유명한 아드님 Eugene Park과도 잘 얘기할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되오. 역시 허심탄회한 것으로 보이오. 사실 박형과 나 그렇게 나서는 편이 아니라 동기 사이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형은 유진 박의 아버지로 잘 인지되지 않았소.

또한 4~5년전 쯤으로 아는데 김윤배형, 엄정길형 (둘다 경기 고교동기)이 나와 같이 유진이와 미세스 박이 운영하는 신촌의 음악 Club에 갔었던 일이 생각나오. 사실 미망인 미세스 박은 우리 의대 대선배님인 이규용 선배님(41)의 따님(이장주 여사, 역시 경기 여고 출신)으로 유진이의 더욱 큰 성공을 위하여 계속 바쁘게 노력하고 계시니 이점은 염려하지 마시오.

박형은 의사로서 크게 성공하였소. 그 유명하고 큰 뉴욕시에서 어떤 장애인이 휠 চে어를 타려면은 박형의 짜인이 필요하지 않았소.

내가 이 글을 쓰기 전에 박형과 가까운 지역에 살던 몇분과 자문 겸 얘기를 나누었소. 요사이 우리 나이에 은퇴하는 사람이 늘어가는데, 박형은 몇달전에 85세까지 일을 하겠다 하였으니 당신 의사 직업에 그 dedication이 대단하였소. 또 이 얘기한 김석식형도 나와 동감으로 박형이 유별나게 선량한 사람이며 속(속세의 속)됨이 없는 사람이라 합디다. 이래서 속세를 먼저 떠나게 된 것이란 말이오. 박형, 하지만 아직 속세에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 섭섭하오. 단지 박형과 같은 선량한 사람은 물론 하늘, 그 중에도 제일 좋은 천당에 가 있을 것이니 위로가 되지만, 아직도 이 속세에 있는 내가 박형과의 그 전일들을 한번 회고하지 않고는 견디기가 어려워 몇자 썼으나 혹시 실례되는 말이 있었으면 용서 해주오.

원고모집안내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지 '시계탑'에서는 동문여러분들의 유대와 결속에서 오는 좋은 회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내용:

동기 및 동문소식, 지부 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시,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사진, 그림 등의 작품.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보내시는 방법: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고, 원고는 한글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시는 World 혹은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시고 Floppy Disc도 동봉바랍니다. E-mail로 보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kim68@nyc.rr.com

*한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문원고는 사절합니다.)

House of Delegates & Alumni Meeting

June 30 to July 3, 2005
Gall Lake Resort
near Kalama Zoo
Golf Packages only

Contact

회장 이한중 248-540-3906
총무 이태석 248-625-8909

함춘회관 건립과 운영상항 보고서



의과대학쪽 1층 출입구와 (동창회, 함춘회관) 표지판

함춘회관 건립사업은 오랫동안 많은 회원들이 숙원해 오던 가운데 1995년 1월 우리 동창회 상임이사회에서 발의 채택되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그 이듬해 7월에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목표액 40억원의 기금모금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기금 모금 사업 기간중 IMF 외환위기 사회와 의약분업 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혼란시기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만 4년만인 2000년 8월 모금목표액의 90% 청약 달성에 이르러 서울대학교 당국과 회관건립 및 기부채납 특약을 체결하고 곧이어 같은해 10월에 관련 행정관서로부터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작년 10월에 회관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12개월만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 뜻깊은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춘회관은 지하 1층, 지상 7층, 연건평 1,040여평의 현대식 건물로, 앞으로 1층에 회원 휴게실을 겸한 Alumni Memorial Hall, 2층에 Alumni Club으로서 식당, 3층에 대회의실 겸 강당, 그리고 7층이 동창회 사무실과 6층의 회원용 사무실, 그밖에 소회의실 겸 분임토의실과 교육 연구 진료 지원공간을 운영하여 학내의 회원간의 정보 교류와 유대강화, 회원에 대한 편의 후생복지 시설 제공, 회원과 모교 및 모교병원의 교육 연구 진료 지원공간 제공, 회원의 학술연구비 지원 등 본회 학술연구재단의 목적사업을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이 회관은 지난 공사기간 중 모금경비나 내장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 건축비로만 약 37억2천여만원이 들었는데, 이 재원은 국내에서 2,200여명, 국외에서 430여명 합해서 2,600여명의 열성적 회원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출연금 38억5천여만원과 그 이식으로 총당하였으며, 이 기금 가운데에는 (주)조흥은행이 출연해 주신 1억원을 비롯하여 본회 회원이 아닌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정성도 포함되었습니다.

건축비	3,603,260,000	합계 3,691,560,000원은 서울대학교에 기부채납 (함춘회관)
부대시설비	88,300,000	
집기 비품 비용	48,915,000	
기념품/미술전/준공식 등 제경비	40,631,470	
함춘회관 건립기금 모금 사업비	556,393,105	1997. 2. 18~2003. 4. 30
학술연구재단에 출연한 출연금	300,000,000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증자
계	4,647,499,575	

현재 입주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 입주현황 (2004. 4. 26 현재)

층별	입주자	용도
지하	이지케어택(주)	병원 전산업무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처리 서비스 등
1	함춘헌(메모리얼홀)	회원 휴게실
1	조흥은행	은행
2	함춘원	중식당
3	대강당(가천홀)	강당
4	서울의대 매체기반 학습실	의대 학습실
5	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기자실/교육연구부 행정팀	병원 행정실
6-1	(주) 버추얼엠디	인터넷 홈페이지
6-2		의료네트워크
6-6		
6-3	우종인 교수	연구실
6-4	(사)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	협회 사무실
6-5	백암연구실	연구실
6-7	(주) 한국불입센터(장중환)	생명공학, 의료관련기술 연구 개발
6-8	이순형 명예교수	연구실
6-9	한국비상의학회(주근원)	학회사무실
7	동창회 사무국, 재단	동창회, 재단



기금을 내주신 분들의 명단 동판

회관 임대 및 운영 규정을 말씀드리면,

회원 임대용 사무실

회원사무실의 임대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 회원(개인), 다만 중복의 경우 선심회기 우선으로 한다.
- 2) 본회 산하 동기회 및 지회
- 3) 모교(모교병원 포함)의 각 교실 동문회
- 4) 본회 회원만으로 구성된 각종 모임(예: 함춘여자의사회, 함춘기성회 등)
- 5) 본회 회원이 주도하는 각종 학회, 친목회 등
- 6) 기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

회원사무실의 임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최초의 임차인 선정은 공모로 하되 중복된 경우에는 위의 순서대로 배정한다.
 - 2) 그 이후에 공실이 발행했을 때에는 문서 접수된 대기자 중에서 위의 순위대로 배정한다.
 - 3) 임차인의 선정 과정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회가 정한다.
- 회원 사무실의 임대료는 임대면적에 비례하는 보증금과 월세로 하되 그 액수는 위원회가 시세를 참작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따로 정한다.



대학로쪽의 함춘회관 표석과 1층 전면모습(위), 회원전용 휴게실 사랑방 입구의 걸모습 (아래)

에게 우선적으로 대실한다.

준수사항

- 1) 시설, 집기 등을 손상없이 청결하게 사용해야 하며 퇴실시에는 관계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용기간 중의 기물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해야 한다.
 - 3) 비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 집기(전열기 등)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숙소의 대실료는 위원회가 매 회계연도 마다 따로 정한다.

대회의실 겸 전시실

대회의실은 다음의 경우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대단법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학술연구재단 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 2) 국내외 학술 세미나 및 시청각 교육
- 3) 음악회, 미술전, 소인극, 바자회 등 문화 행사.
- 4) 기타 함춘회관 관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1회성 행사.

대회의실의 이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재단
- 2) 본회
-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4) 서울대학교병원
- 5) 본회 회원(개인)
- 6) 모교 재학생 동아리
- 7) 기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

이용 신청

- 1) 이용신청은 이용일 2개월 이상 전에 해야 한다.
- 2) 이용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서식 별정)

편집자주: 이 보고서는 2004년 발간 함춘회관 건립보고서 (1996~2003)에서 발췌한 것임. 참고한 것임. - 심 영 보 (61)보고



가천홀 입구와 내부

The 22nd Annual Medical Convention

General Programs

WEDNESDAY, MARCH 9, 2005

- 4:00pm Registration at Lobby
- 4:30pm Delegate Meeting
- 6:30pm Welcome Reception Dinner by the swimming pool for Members and family
- 8:00pm Ribbon cutting & reception for Art exhibition

THURSDAY, MARCH 10, 2005

- 7-11am Scientific Session
- 1-6pm Golf Outing
- 7:00pm Members Class Reunion

FRIDAY, MARCH 11, 2005

- 7-11am Scientific Session
- 1-6pm Golf Outing
- 7:00pm Talent Show

SATURDAY, MARCH 12, 2005

- 7-11am Scientific Session
- 1-6pm Golf Outing
- 7:00pm Grand Banquet Dinner

SUNDAY, MARCH 13, 2005

- 8:00am Executive Committee Meeting
- 11:00am Check-out

Scientific Session Programs

THURSDAY, MARCH 10, 2005

Moderator: Joe H. Yun, M.D.

- 7:00 - 7:10 am Welcome from the president of SNUCMAA
Hahn Joang Lee, M.D.
- 7:10 - 7:20 am Introduction from the Scientific Chair
Joe H. Yun, M.D.
- 7:20 - 8:00 am What's New in Valvular Hear Surgery
G. Michael Deeb, M.D.
- 8:00 - 8:10 am Questions and Discussion
- 8:10 - 8:50 am What's new in the Treatment of Congestive Heart Failure
D. Bradley Dyke, M.D.
- 8:50- 9:00 am Questions and Discussion
- 9:00- 9:10 am Refreshment Break
- 9:10- 9:20 am Greetings from Dean or Hospital President
- 9:20-10:00 am Antimicrobial Management of Acute Exacerbation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Byungse Suh, M.D.
- 10:00-10:10 am Questions and Discussion
- 10:10-10:50 am Music, Brain and Spirituality The Reverend
Sung Ho Bae, M.D.
- 10:50-11:00 am Questions and Discussion

FRIDAY, MARCH 11, 2005

Moderator: Edmund E. Kim, M.D.

- 7:20 - 8:00 am Gastric Careinoma
Chang Ho Suk, M.D.
- 8:00 - 8:10 am Questions and Discussion
- 8:10 - 8:40 am Peripheral Vascular Disease
Geun-Eun Kim, M.D.
- 8:40 - 8:50 am Questions and Discussion
- 8:50 - 9:20 am Bipolar Disorder
Christopher K. Chung, M.D.
- 9:20 - 9:30 am Questions and Discussion
- 9:30 - 9:40 am Refreshment Break
- 9:40 -10:20 am New Advances in the Management of Hepatitis B
Hie-Won L. Hann, M.D.
- 10:20-10:30 am Questions and Discussion
- 10:30-11:00 am Golf Injuries
Dai Ok Moon, M.D.
- 11:00-11:10 am Questions and Discussion

SATURDAY, MARCH 12, 2005

Moderator: Joe H. Yun, M.D.

- 7:20 - 8:00 am Molecular Imaging with Emphasis on PET,CT and Cancer
Edmund E. Kim, M.D.
- 8:00 - 8:10 am Questions and Discussion
- 8:10 - 8:40 am PDE 5 Inhibitors & Cardiovascular Disease
Dennis S. Miura, M.D., Ph.D.
- 8:40 - 8:50 am Questions and Discussion
- 8:50 - 9:30 am EBT, EBA etc.
John A. Rumberger, M.D., Ph.D.
- 9:30 - 9:40 am Questions and Discussion
- 9:40 - 9:50 am Refreshment Break
- 9:50-10:20 am Controlling Cholesterol New Diagnostic Tests, Drugs and Diet Therapy
Frank Repka, Ph.D., R.D.
- 10:20-10:30 am Questions and Discussion
- 10:30-11:00 am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nd 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Jae Chan Chang, M.D.
- 11:00-11:10 am Questions and Discussion



Spouse Programs

THURSDAY, MARCH 10, 2005

- 9:00- 9:50 am 현대미술 감상 Sun-Young Won Lee, Ph.D
- 10:00-10:50 am 오페라 감상 Hie-Won L. Hann,MD

FRIDAY, MARCH 11, 2005

- 9:00- 9:50 am 여성홀몬 상식 Kyu Jeong Hwang, MD
- 10:00-10:50 am 심장병 상식 Edward K. Chung, MD

SATURDAY, MARCH 12, 2005

- 9:00-10:50 am 법률 상식 Ms. So Young Lee, Lawyer

"Crittenton Hospital Medical Center, designates this educational activity for a maximum of eleven(11) hours in category 1 credit towards the AMA Physician's Recognition Award. Each physician should claim only those hours of credit that he/she actually spent in the educational activity"

Registration Form

Name (English): _____

(Korean): _____ Class of: _____

Address: _____

Tel: (H) _____

(O) _____

E-mail: _____

Spouse Name: _____

Children: _____

Names and ages: _____

Registration Fee

Please make check payable to SNUCMAA & send to New York office before February 20, 2005
Please use return envelope for your convenience.

- | | | |
|---|-----------------|----------|
| 1) Registration fee : | \$300 | \$ _____ |
| 2) Talent show on March 11(Fri) | \$75 /p x _____ | \$ _____ |
| 3) Annual Family Banquet on March 12(Sat) | \$100/p x _____ | \$ _____ |
| 4) Golf | | |
| March 10 (Thur) | \$100/p x _____ | \$ _____ |
| March 11 (Fri) | \$100/p x _____ | \$ _____ |
| March 12 (Sat) | \$100/p x _____ | \$ _____ |
| 5) Tour | | |
| March 11 (Fri) One day trip to Epcot Center | \$ 70/p x _____ | \$ _____ |
| March 12 (Sat) Shopping Trip | \$ 20/p x _____ | \$ _____ |
| TOTAL \$ | | _____ |

Speakers Roster

REVEREND SUNG HO BAE, M.D.

Clinical Associate Professor of Neurology
Thomas Jefferson University Medical School
E-mail : baesungho@aol.com
Topic : Music, brain and spirituality

JAE C. CHANG, M.D.

Clinical Professor of Medicine and Director of Hematology/Oncology Fellowship Progra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College of Medicine & Medical Center
E-mail : jaec@uci.edu
Topic :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nd 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CHRISTOPHER K. CHUNG, M.D.

Assistant Clinical Professor of Psychiatry
David Geffen School of Medicine at UCLA
E-mail : drechung@worldnet.att.net
Topic : Bipolar disorder in nature

G. MICHAEL DEEB, M.D.

Professor of Surgery & Co-director of the Heart Care
University of Michigan Medical Center
E-mail : mdeeb@med.umich.edu
Topic : What is new in valvular heart surgery

D. BRADLEY DYKE, M.D.

Assistant Clinical Professor of the Division of Cardi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University of Michigan Medical School
E-mail : ddyke@med.umich.edu
Topic : What is new in the treatment of congestive heart failure.

HIE-WON L. HANN, M.D.

Professor of Medicine
Thomas Jefferson Medical College
E-mail : hie-won.hann@jefferson.edu
Topic : New advances in the management of hepatitis B.

EDMUND E. KIM, M.D.

Professor of Radiology & Medicine,
University of Texas Medical School
E-mail : ekim@di.mdacc.tmc.edu
Topic : Molecular imaging with emphasis on PET/CT and cancer

GEUN-EUN B. KIM, M.D.

Professor of Surgery, Medical College of Ulsan Univ.
E-mail : gekim7@amc.seoul.kr
Topic : What is new in peripheral vascular disease.

DENNIS S. MIURA, M.D., PH.D.

Assistant Clinical Professor of Medicine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E-mail : dmiuramd@aol.com
Topic : Erectile dysfunction.

DAI O. MOON, M.D.

Attending Orthopedic Surgeon, Medical Ctr of Delaware
E-mail : dmoon625@hotmail.com
Topic : Golf injuries: Treating the play to treat the players.

FRANK J. REPKA, PH.D., M.D.

Director of Lipid and Nutrition Program,
Associate Professor of Family Medicine,
Medical College of Ohio
E-mail : freпка@mco.edu
Topic : Controlling cholesterol. New diagnostic tests, treatment targets and diet/drug therapies.

JOHN A. RUMBERGER, M.D., PH.D.

Clinical Professor of Medicine,
Ohio State University Medical Center
E-mail : jrumberger@healthwisecenter.com
Topic : Electron beam CT and preventive medicine

BYUNGSE SUH, M.D., PH.D.

Prof. of Medicine, Section Chief of Infectious Disease
Microbiology and Immunology
Temp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mail : bingsuh@temple.edu
Topic : Antimicrobial management of acute bacterial exacerbations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HANG HO SUK, M.D.

Clinical Instructor, Cornell University Medical College
and Attending Gastroenterologist,
New York Medical of Queens
E-mail : changhsuk@aol.com
Topic :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of gastric carcinoma.

JOE YUN, M.D., F.A.C.C.

Moderator, Director of non int. Cardiology Services
Crittenton Hospital Medical Center
E-mail : jyun@cava.cc

Art Exhibition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화, 서예, 사진, 조각, 공예품 등을
출품하실 분들은
준비위원들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오동환 동문 (248) 855-1109
조의열 동문 (248) 644-8351
Mrs. 이한중 (248) 540-3906



64년 동기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

봄이 오면 개나리 철쭉꽃 만발하던 함춘동산을 떠난 지 벌써 40년. 강산이 변하여도 족히 네 번이나 바뀌었을 긴 세월을 맞이한 채 서울위대 18회 동창들은 나이라는 급행열차를 타고 질주한 탓에 이제 주름도 완숙한 중로(中老)의 얼굴이 되었다. 그러나 마음만은 추억의 사람병이었던 함춘동산을 잊지 못하고 뇌리에 선명하게 옛 사건들이 그리움의 편린(片鱗)으로 반짝이고 있다.

이제 함춘원은 딱딱한 콘트리트 건물과 더불어 주변에는 문명의 이기(利器)로 인한 소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도 젊은 날의 낭만과 방황의 진원지였던 동송동 '학림다방'은 아직 건재하지만 유황냄새 나던 문리대 앞 시궁창이며 자장면과 배갈소주 속에 우정을 깊이 채색 시켜주던 '진아춘'은 흔적도 없다.

한 시루안에서 같은 물 받아 먹고 자라는 콩나물처럼 고락(苦樂)을 같이 나누었던 우리 동기들은 국내보다 미국으로 더 많이 공부하러 떠났었지만 이제 졸업 40년만에 모두 뜨거운 해후와 함께 모교에서 흥겹고 큰 대회를 갖게 되었다.

본국 동창회와 모교가 주관한 '홈커밍 데이' 행사가 지난 10월 13일 오전 10시 모교 강당에서 성대히 열렸다. 금년도 행사에는 졸업 40주년을 맞은 Class of 64가 주빈으로 초대되어 모교와 동창회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날 이길여 회장은 환영인사에서 함춘동산에 금의 환향한 Class of 64 가족을 가슴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국내외에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와 위상을 높여준 동기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14차 홈커밍 데이 행사에서는 미국의 송관호 동문과 한국의 김노경 동문이 '자랑스런 서울의대인'으로 선정되어 상패를 받았다.

이어서 모교와 병원의 주요 현황에 대한 청취 및 모교와 병원의 시설물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본관과 병원 시계탑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어린이 병원에 있는 가든 뷰에서 축배와 점심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날 오전 행사를 마쳤다.

64 동기회는 이번에 모교 발전기금 2천만원을 왕규창 학장에게 전달했으며, 졸업 40주년을 기념해 '함춘원 그리운 사십년'을 타이틀로 한 기념집을 발간했다.

저녁 6시부터는 신라호텔 다이너스

티 홀에 한국 36커플, 미국 37커플 총 145명이 참석 자축연을 열었다. 동기회장 김윤수(한국)동문, 이웅만(미국)동문의 인사말에 이어서 김노경 행사준비위원장의 보고, 김철규 출판위원장의 '함춘원 그리운 사십년' 출판에 관한 보고와 CD를 화면에 비추어 학창 시절의 추억의 사진들을 볼 수가 있었다.

이어서 김동건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서는 가수 최진희 양이 나와 자기의 히트곡과 추억의 흘러간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돋구어 주었다.

이날 저녁의 기념행사는 다음날 부터 시작하는 7박 8일간의 일본여행준비를 위하여 10시 조금넘어 일찍 종료했는데 돌아갈때 동창회장(이길여) 제공 기념품과 정재옥 여사(송관호 동문부인)의 수필집 '뉴욕의 황진이'가 증정되었다.

다음날 일본 관광은 미국이 34커플, 한국이 15커플 총 96명이 참여했는데 그중 52명이 3박4일, 44명이 7박 8일 관광코스를 택했다.

10월 15일 저녁엔 미국 동문 주최 기념연회가 있었는데 벅부스기노이 호텔에 있는 대형 노천탕에서 온천욕을 한후 저녁 7시부터 연회장에 모두 유기타(온천욕복장)를 입고 집합, 4줄로 길게 앉아 식사하는 96명의 사무라이들의 모습은 장관중 장관이었다.

오사카, 교토 등을 거쳐 10월 20일 마지막 날 저녁은 도쿄의 라면집에 모여서 會者定離의 술잔을 나누는 것으로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모두 마쳤다.



모든 축하와 영광이 여러분께

이름보다 별명 부르기가 앞장섰던 나날을 그리워하며 동문들이 함춘동산에서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정경은 세상 어느 기쁨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연건동 모교의 교문을 나선지 40주년을 맞은 제18회 졸업 동기들이 못다한 이야기를 글로 묶어 회상의 기쁨을 더하는 일은 시계탑 출신에는 더없이 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 자신은 물론 모교의 이름을 온 나라에 비추고 계시니 동창된 우리 모두의 감회를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청춘이 각인(刻印)되었던 함춘동산에서 지난날의 추억과 향수를 떠올릴 문집 발간 역시 있을수 없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고, 이러한 메시지는 후학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동창회장 이길여

졸업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96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후 40주년을 맞은 제18회 졸업 선배님들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모교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졸업 40주년을 맞아 국내외에서 활동하시던 동기 동창분들이 재회하시고, 기념 앨범과 문집을 내신다고 하니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변화한 모교와 병원도 둘러보시고, 저희는 여러 선배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의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모교는 국내외에서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시고, 국민 건강의 증진과 학문의 발전, 나아가 후진 양성 등에 힘쓰시고 계신 선배님들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장 왕규창

과음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패가망신의 원인이자 건강과 행복의 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적당한 술(moderate drinking)은 심혈관질환 뿐만 아니라 중풍의 예방과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술 특히 win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발표된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alcohol을 하루에 30g 이하로 규칙적으로 마시면 심근경색증, 심부전증, 뇌경색, 치매, 당뇨병 그리고 골다공증의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에서 술의 단위(잔)는 양주 1 온스를 말하는데 양주의 알콜함량이 45%로 볼 때 이는 13.5g의 알콜에 해당한다. 양주 2잔이 적당한(moderate)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와인의 알콜함량은 12.5%로 하루에 2-3잔, 소주(22%)는 3-4잔(2홉짜리 1/2병), 맥주(4%)는 2잔으로 환산할 수 있다.

술과 심근경색증

술은 특히 당뇨가 있는 사람에서 나쁘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87,938명의 남자의사들을 상대로 5.5년간 시행한 Physician's Health Survey (circulation 2000; 102: 500-505)에 의하면 적당한 음주는 모든 남자와 특히 당뇨병이 있는 남자에서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Table 1. 음주량과 관상동맥질환의(CHD)의 상대적 위험률(RR)

	당뇨없는 의사	당뇨
비음주자	1.00	1.00
1달에 1회	1.02	1.11
1주일에 1회	0.82	0.67
매일	0.61	0.42

술을 거의 매일 마시는 남성의사에서 CHD의 발생률이 당뇨가 없는 사람에서 39%감소하였으며 당뇨가 있는 사람에서는 58%감소하였다. Nurses's Health Survey(30,092 person-year)에 의하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간호사에 비해 술을 하루에 0.1-4.9g(이 연구에서 술 한 잔의 알콜함량을 평균 11g) 마시는 여자에서 허혈성 심장병의 상대적 위험도는 0.74(26% 감소), 술을 하루에 5g이상 마시는 여자에서 상대적 위험도는 52% 감소하였다(RR=0.48, N Engl J Med. 2000; 343: 16-22).

또 하나의 연구에서 30,077명의 의료인 남성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술을 1주일에 3-4일 마시는 사람에서 RR은 0.63이었으며 이 혜택은 1일 음주량이 10g에서 30g 으로 증가하였을 때도 같았다(N Engl J med. 2003; 348: 109-118). 이 연구에서도 간헐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 보다 술을 매일 소량으로 마시는 군에서 더 효과적이었다. 재미있는 사실의 하나는 질병발생률은 알콜 산

화에 관여하는 gene (alcohol dehydrogenase Type 3, ADH 3)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알콜산화가 서서히 되는 homozygosity에서 알콜산화가 빠른 군에 비해 RR은 0.65였다(N Engl J Med. 2003; 348: 109-118). 즉 술이 약한 사람에서 술의 효과가 더 좋

았다(The Rotterdam Study, Lancet 2002; 359: 281-289).

술과 당뇨병 및 골다공증

일반인은 물론 많은 의사들도 음주는 당뇨병을 유발시키고 또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국에서

EVIDENCE BASED CARDIOVASCULAR MEDICINE

적당량의 음주는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이 중 구(57)

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알콜 산화가 느린 사람에서 알콜이 체내에 더 오래 남아 있으면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술과 심부전증

과음은 심부전증과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적당한 음주는 심부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술은 특히 노인에서 해롭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평균 연령 73.7세의 남녀 2,235명을 14년까지 추적한 결과 적당한 양의 음주(1주일에 8-14잔)는 심부전증의 발생률을 47%감소시켰다(JAMA 2001; 285: 1971-1977). Framingham 연구에서도 술을 1주에 8-14잔 마시는 군에서 금주자나 1주일에 1잔 이하로 마시는 군에 비해 심부전증의 발생률이 51% 감소하였다(RR 0.49)(Ann Inter Med 2002; 136: 181-191).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증에 대한 연구(SOLVED)에서 2,594명은 술을 1일 1~14잔씩 마셨고 3,719명은 금주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 정도의 음주는 안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의 재발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술과 뇌경색증 및 치매

과음은 특히 뇌출혈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적당량의 음주는 뇌경색증의 발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9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매일 1-2잔의 음주는 뇌경색 발생률을 49%감소시켰다(Fig 1). 그러나 음주량이 1일 7잔을 초과할 때 뇌경색 발생률은 2.96배로 증가 하였다(JAMA 1999; 281: 5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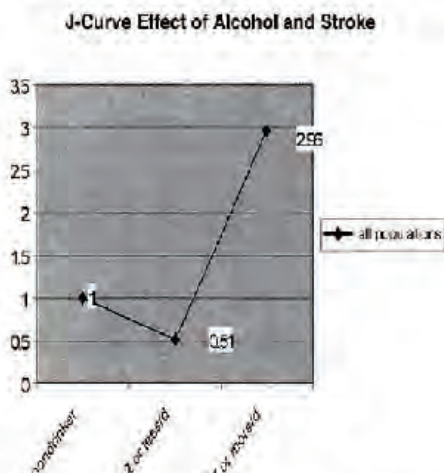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술의 종류는 뇌졸중 발생률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당량의 음주는 치매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55세 이상인 5,395명을 6년간 추적한 결과 술을 1일 1-3잔 마시는 사람에서 금주자에 비해 치매의 발생률이 42% 감소하였으며 특히 혈관성치매의 발생은 더 감소하

17년간 시행한 음주와 당뇨병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적당한 음주는 당뇨병 발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운동습관 흡연 기존의 심혈관질환을 교정하고 얻은 것이다. 음주는 혈청 Insulin을 감소시키고 HDL-Cholesterol을 증가시켰지만 이것은 이 효과의 작은 부분(20%)만을 설명할 수 있었으므로 그 외에 다른 어떤 기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Nurse's Health Study에서는 1주일에 술을 75g이상 마신 여성에서는 금주자에 비해 척추골의 골밀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0.951 vs 0.849, P=0.002). 그러나 이 연구에서 폐경 후 estrogen 사용자에서도 골밀도가 증가되었다(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2; 56: 542-548).

유럽의 19개국에서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14,237명에서 1주일에 5일 음주를 한 사람에서 금주자

Fig 1. 음주와 뇌졸중의 위험률



에 비해 성, BMI, 흡연, 운동습관, 골질의 과거력 등을 교정할 때 척추골의 이상이 35%(OR 0.65)감소하였다(Osteoporos Int 1997; 7: 65-71). 이 연구에서도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서 허혈성 심장병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과 사망률

과연 적당량의 술이 건강에 좋다면 사망률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Physician's Health Study에서 하루에 술을 2-4잔 마시는 남성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RR 0.73). 그러나 하루에 술을 6잔 이상 마시는 사람에서 사망률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J Am Coll Cardiol 2000; 35: 96-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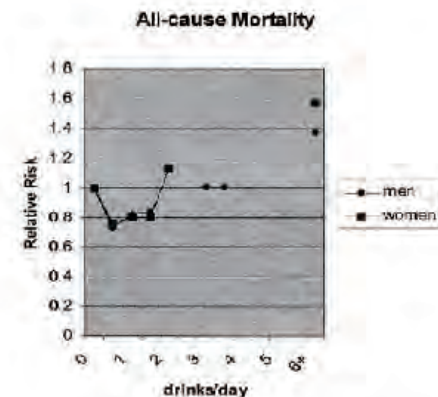


Fig 2. 음주와 전체적 사망률

연령과 다른 관상동맥 위험인자를 교정한 후에도 술을 하루에 한잔이상 마시는 군에서 금주자에 비해 사망률이 18% 감소시켰다. 영국의 의사들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50-90세의 남성의사에서 술을 1주일에 8-14잔 마시는 군에서 전체적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BMJ 1994; 309: 911-918). 심혈관질환 사망률은 음주량과 상관없이 음주자에서 비음주자에 비해 사망률이 낮았다. 그러나 1주일에 14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에서 사망률은 증가 하였다. 적당한 음주가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은 덴마크에서도 발표되었는데 이들은 29-98세의 남자 13,064명과 여성 11,459명을 30년 이상 추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음주량과 사망률은 J모양을 이루었다. 즉 금주자에 비해 소량의 음주자(주당 1-7잔)에서는 사망률이 18%감소하는 반면 주당 35잔 이상의 대량 음주자(매일 5잔 이상)에서는 사망률이 10% 증가하였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당 8-12잔 마시는 군에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군에 비해 전체적 사망률이 24% 감소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이런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술을 1일 2-3잔을 1주일에 4-5일 정도 마시면 심혈관질환과 전체적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의 효과는 다른 약의 효과와 같을 것이다. 소량으로 매일 마시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적포도주가 맥주나 양주, 소주보다 더 좋다고 인식되면서 와인의 소비량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에는 이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www.koonja.co.kr

군자출판사에서 영문으로 의학서적을 출간하실 저자 분을 찾고 있습니다

26년간 의학서적만을 고집스럽게 출간해오며 의학서적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군자출판사에서 세계로 진출하고자 영문으로 세계수준의 의학서적을 집필해주실 선생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그 실력을 인정 받고 계신 서울의대 동문 여러분의 많은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112-1 동원회관3층 군자출판사(주) 대표 장주연
전화 : 82-2-762-9194 팩스 : 82-2-764-0209 e-mail : helen@koonja.co.kr

당뇨병과 인슐린 발견의 역사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과 당뇨병이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당뇨병 환자의 수가 150만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 3월 1일 KBS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에 의하면 남대문 거리에서 수행된 무작위 검사에서 47명 피검자 가운데서 35명 즉 75%에서 혈당치가 대단히 높아서 당뇨병 환자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이들 예비 당뇨병 환자들이 아무도 자각증세가 없었고 혈당치가 높은것을 모르고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 환자가 전혀 진료를 받지 않고 방치 된다면 5년이나 10년 뒤 그 합병증으로 크게 고생하게 될은 물론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환자 자신, 가족, 사회에게 크게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당뇨병의 역사는 대단히 길어서 서기 기원전 1500년 즉 3500년전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에벨스파피러스" 에 당뇨병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갈증이 심하고 다뇨증세가 있는 병)이며 그 약으로는 "밀가루, 잔모래 그리고 납가루를 물에 타서 여과한뒤" 나물동안 복용한다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서기 10세기 송(宋)나라 때 발간된 "금귀요략" 이란 의서에서 당뇨병을 소갈(消渴)이라 기록하고 "소변의 양이 많아지고 한되가 넘는 물을 마신다" 라 하였다. 이씨조선 선조때 발간된 "동의보감" 에서도 당뇨병을 소갈이라 기재하고 있으며 그 특효약으로서는 인삼, 지황, 삼백피, 대황, 감초, 당귀, 오미자, 천화분, 황련, 우유를 적절하게 섞어서 처방한다 하였다. 오랫동안 당뇨병의 원인과 발병기전은 알려지지 않았고 20세기가 되어서 그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다. 1916년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셰이퍼 (Edward Shaffer)가 췌장의 랑게한스 소도(小島, 작은섬)에서 한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이 부족되면 당뇨병에 걸린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정의 물질을 소도라는 라틴어 인슐라(insula)에서 유래된 인슐린(insulin)이라 이름지었다. 1921년 여름 캐나다 토론토의대 생리학연구실에서 29세의 외과 의사 프레데릭 번팅 (Frederic Bunting)과 19세의 의대학생 찰스 베스트(Charles Best)가 개를 실험 동물로 사용하여 당뇨병 연구를 시작하였다. 랑게한스 소도 만 남기도록 수술한 개의 췌장추출액을 췌장제거에 의하여 만든 당뇨병 개에 주사 하였던 바 혈당치가 크게 저하하여 개의 당뇨병이 치유되었다. 이렇게 하여 인슐린이 번팅과 베스트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이 위대한 공적으로 번팅과 연구실과 스무마리의 개를 제공한 존 맥크라우드(John MacLaud)는 1924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하였다. 찰스 베스트 대신 존 맥크라우드가 노벨상을 받는데 대하여서는 아직도 학계나 일반에서 잡음이었다. 당뇨병으로 죽임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첫 환자는 13세의 레나드 톰슨 (Leonard Thomson)이란 캐나다 소년이었다. 톰슨 소년은 2년전에 발병한뒤 체중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혼수에 들어가는 직전이었는데 소의 췌장에서 만든 추출액을 주사하여 위험하게 높은 혈당치가 정상레벨로 급속하게 저하하였다고 한다. 이 기념스러운 날이 1923년 1월 23~24일이었다. 이와 같이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의병 당뇨병 환자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인슐린이 수백만 수천만의 인명을 구제하게 된 것이다.

노벨의학상

자연과학의 분야인 물리, 화학, 의학을 위시하여 문학, 경제, 평화분야에서의 획기적인 업적에 대하여 수여되는 수많은 영예와 상훈에서 그 정점에서는 것에 노벨상이 있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는 한국의 오랜 꿈이 지난 해 2001년 김대중 씨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노벨평화상이 특이하게 정치적 인 고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

에서 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베트남 전쟁 종료직후에 킷신저 미국 국무장관과 베트남 의상이 수상한 경우라 든가 일본 사토 수상이 오키나와 반환 뒤에 수상한 예를 보면 도대체 수상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하여야 할 지경이다. 김대중씨가 수천만 달러의 돈을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 갖다 주고 인위적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 시킨듯 환상을 만들어서 수상하였다는 중론이 맞는 것 같다. 이에 따라서 노벨상의 뜻은 자연과학의 분야인 물리, 화학, 의학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벨상은 스웨덴의 실업가 알프렛 노벨이 다이내마이트 발명과 사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결핵환자와 가짜의사

삼년 전 서울시내 일간신문에 다음과 같은 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치가 떨리는 기사가 게재되어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결핵환자촌> 교회에서 82세의 무자격 돌팔이 사기꾼이 결핵특효약이라 해서 10명의 결핵환자에게 주사를 하고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사망하고 나머지 환자도 중상인 상태로 국립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입원하였다. 이 의사 사칭자는 반달곰 응답을 증류수에 타서 주

이십일세기의 의료를 생각한다 III

김 승 업(60)

업화로 거부를 이루고서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언에 의하여 인류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탁월한 업적에 대하여 상금을 수여하도록 하여 노벨상의 기초가 이루어진바 있다. 1901년에 시작된 노벨상 수상은 100년이 넘었고 1901년 첫째의 수상자는 X선을 발명한 W 렌트겐이 물리학상, 열역학의 법칙을 정립한 J 란트 후이 화학상, 그리고 디프테리아 혈청요법을 창시한 E 폰 베링이 의학상을 수상하였다. 노벨의학상의 분야에서 국한해서 보자면 그 수상자의 리스트에서 근대의학의 진보와 발전에 크게 공헌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볼 수가 있다. 1904년에는 조건반사로 유명한 러시아의 I 파브로프, 1905년에는 결핵균을 발견하고 근대미생물학의 기초를 다진 독일의 R 코흐, 1906년에는 근대 신경과학의 기초를 만든 이태리의 C 골지와 스페인의 R 카할이 있다. 최근의 노벨의학상을 보면 1984년에 모노클론 항체를 개발한 G 켈러(스위스)와 S 밀슈타인(영국), 1985년에는 신경성장인자를 발견한 R 몬탈치니(이태리)와 상피성장인자를 발견한 S 코헨, 1987년에는 항체생성에 대한 유전적 원리해명으로 일본의 S 토네가와가 있다. 1996년에는 면역세포의 방어기전을 해명한 P 도허티(호주)와 R 친커나 켈(스위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0년에는 신경전달물질에 관한 연구로 E 캔달(미국), P 그린가드(미국) 그리고 B 칼손(스웨덴)이 있다. 1996년 수상자인 P 도허티박사는 나와 펜실바니아의 대의 같은 연구팀에서 일하던 동료로서 이렇게 훌륭한 친구를 가지는 것이 나 자신 자랑스럽다. 한편으로 광휘있는 노벨상에서도 여러가지 곱지 못한 잡음이 있다. 노벨상을 수상하려면 첫째 장수하여야 하며 둘째 선발위원들이 거주하는 스웨덴 스톡홀름을 때때 방문하여 매명 행위를 하여야 한다 등의 인간사에 항상 따라 다니는 번잡한 절차가 있다. 더욱 근본적인 결함은 잘못된 이유로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이다. 1926년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덴마크의 J 휘비거는 기생충인 선충이 사람의 위암을 발생시킨다는 업적으로 이 영예를 받았는데 이것은 선발위원회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캐나다의 F 번팅과 J 맥크라우드가 인슐린의 발견으로 1923년도 노벨의학상을 수상하였는데 맥크라우드는 인슐린 발견과 그에 의한 당뇨동물의 치료연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인슐린 발견자인 번팅에게 스무마리의 실험용개와 연구실을 제공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W 해스(스위스)와 A 모니스(폴투갈)는 1949년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대뇌절단수술에 의한 치료의 업적으로 1949년의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였는데 이들의 과격하고 근시안적인 수술법으로 수많은 정신병 환자가 식물인간처럼 폐인이 되었으니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노벨상도 좋지만 이러한 과실과 착오가

사하면 결핵이 완치된다고 하면서 환자들에게 주사하였다고 한다.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에 의하면 소독이 되지 않은 물질이 혈액에 들어가서 패혈증(셉시스) 증세를 보여 장과 신장 기능이 파괴된 것이라 지적한바 있다. 놀라운 것은 강모라는 이 사기꾼이 용두동에서 무면허 시술원을 10년 이상 개원하고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영업을 하였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경찰, 사법, 보건 관계자가 모두 무위도식하면서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사고가 난 은평구의 <결핵환자 마을>에는 갈곳 없는 결핵환자가 300 명 이상 살고있다고 한다. 이들이 적절한 항결핵치료를 받고 있는지 크게 걱정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최근 신홍감염증(새롭게 나타나는 감염증)과 재홍감염증(잘 알려진 감염증)으로 새롭게 유행하는 감염증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97년에 작성한 세계보건레포트는 전염병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음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감염증은 인류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큰 원인으로 세계적으로 연간 1700만명 이상의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세계는 현재 새로운 감염증 유행으로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할 수가 없다. 앞서 말한 재홍감염증, 즉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었던 감염증으로 새롭게 유행하는 전염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핵, 디프테리아, 콜레라, 대장균감염 등이 있다. 결핵은 1960년대까지 한국에서 많은 환자가 있어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되었는데 그 뒤 양호한 항결핵약의 투여로 공중위생상 문제가 안될 정도로 환자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약제에 저항할 수 있는 약제내성결핵균의 증가와 환자들의 면역성저하 등의 이유로 결핵환자 수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이 OECD, WTO 등의 일등국가의 멤버가 되었다고 허영스럽게 자랑하기 전에 자기 식구의 일원인 결핵환자들과 그 밖의 약하고 가난한 환자들을 돕고 구하는 의료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우리의 선구자 전유형 (全有亨)

이씨조선 중기에 인체해부를 하다가 고래로부터 한국에서 이어져온 한의학(漢醫學)이나 동양의학(東洋醫學)에서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신체각부 특히 내장장기를 오장육부(五臟六腑)라하여 열하나의 장기를 구별하였다.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의하면 오장육부는 간(肝), 심장(心臟), 비장(脾臟), 폐(肺), 신장(腎臟)의 오장(五臟) 그리고 담낭, 위(胃), 소장(小腸), 대장(大腸), 방광(膀胱), 삼초부(三焦腑)의 육부(六腑)로 구성되었다 하였다 (삼초부가 무엇인지 짐작이

안된다). 오장육부로는 신체 기능을 모두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한지부(奇恒之腑)-기묘하고 반듯이 있어야할 장기-라 하여 보조장기로써 생리작용을 설명하려 하였다. 이에 뇌(腦), 수(髓), 골(骨), 맥, 포(胞)가 있다. 맥은 혈관을 그리고 포는 자궁을 지칭하고 있다. 뇌와 척수는 현대의학에서는 모든 신체기능을 조절하고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인데 비하여 동의보감이나 한의학에서는 뇌수가 완전히 무시되는 존재이고 신경기능은 오장이 지배한다고 하였다. 간은 혼(魂)을, 폐는 백(魄)을, 심장은 신(神)을, 비장은 기(氣)를 그리고 신장은 정(精)을 간직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해부학적인 그리고 생리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리 몸의 생리를 설명하려는 한의학 (동양의학 에서는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이나 오운육기(五運六氣)에 바탕으로 하여 말도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헛소리가 이론적 근거가 되어왔다. 중국의학에 그 원류를 가진 한의학 동양의학이 오장육부, 음양오행, 오운육기등 숫자 다섯과 여섯을 즐겨서 거론함을 알 수 있다. 오장 육부와 다섯 기한지부(보조장기)를 열거하고 나면 중요한 장기나 조직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근육(筋肉), 췌장(膵臟)이 빠져있고 신경(神經)도 빠져 있다.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려면 인체 해부를 한 뒤 그 안의 구조를 실증적 정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한의학이나 동양의학에서는 인체해부가 금기가 되어 있어서 인체구조가 현년전이나 되는 편자의 시대에 기술된 오장육부를 신봉하는 허준의 동의보감이 바이블처럼 통용 되는 시대가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 질병의 원인을 밝혀서 진단을 한 뒤 이에 대한 치료를 하는 서양의학과 달리 진맥을 하고 증이라 하는 특별한 방법에 의하여 환자를 구분하고 한방약을 처방하는 한의학에서는 정확한 해부학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같은 동양의학을 신봉하는 일본에서는 1754년 음력 2월 교토의 야마와키 토요(山陽東洋)와 네명의 한 의사가 사형당한 38세의 남자의 몸을 해부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야마와키는 장지(臟志)란 책을 발간하였다. 1771년에는 스키타 겐파쿠(杉田玄白)와 마에노 료타쿠(前野良澤)가 에도 (지금의 도쿄)에서 사형당한 사람의 인체해부를 관찰하고 이에 자극되어서 서양의학 해부학 교과서인 해체신서(解體新書)를 번역 발간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한국에서도 옛 기록을 찾아보면 인체 해부의 기록이 있다. 성호(星湖) 이익(李瀾)이란 학자가 1750년에 저술한 책설(策說)에 다음과 같은 기술이있다. 전유형(全有亨)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자는 숙가(叔嘉) 호는 학송(鶴松)이라 하였다. 명종 병인년에 강원도 평강에서 태어나고 선조 을사년에 문과에 등제하여 관도에 올랐다. 임진난중에 선조임금을 따라 국사에 종사하고 공이 많았다. 광해군 대에 실력자인 이이첨과 가까이 지내면서 형조판서에 올랐다. 인조 2년 갑자(甲子)년 때에 이이첨 일파로 몰려서 목숨을 잃었다. 기록에 의하면 임진난 중에 세번 죽은 사람의 해부를 스스로 시행하고 이에 대하여 서술한 저서가 있었다고 한다. 불행하게도 그 책이 남아있지 아니한다. 전유형은 이러한 실증의학을 종합하여 의술에 능하여 많은 사람을 살렸고 후인이 그를 활인(活人)의 술을 가진 사람이라 칭송하였다 한다. 뒤에 사람들이 전유형이 사람의 해부를 하는 못된 짓으로 하늘의 벌을 받은 것이라 하였다.

우리 한국에도 감히 지식과 과학의 암흑시대라 할 이조중기에 이렇게 전진적이면서 개명된 선구자가 존재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위로가 된다. 아쉬운 것은 그가 저작한 저서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21세기 장기이식 주도할 한국

사이언스지에서 세계 10대 과학연구 업적의 하나로 선정된 한국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추출은 인간복제의 가능성을 입증했고, 장기이식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부반응'을 해결하여 21세기 장기이식의 혁신을 가져올 전망이다. 시카고 의대 김윤범 교수팀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무균폐지'장기도 인간에게 '거부반응' 없는 장기를 제공할 것이 크게 기대되고, 황 교수의 말처럼 "10년 안에 '무균폐지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장기이식의 기초를 닦은 두 교수업적이 상벽을 이루어 한국의학이 장차 세계장기이식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인류복지를 향한 우리 의학계의 꿈이라 할 '암과 여러 불치병정복'의 날이 올 것을 기약하고 있다. 한국과 한국인의 자량이 아닐 수 없다.

세계경제수준 12위의 한국은 하루빨리 국제적 창피라 할 2원제 의료제도를 지양하고 일원화하는 일이 지상과업인데도, 무지한 지도자는 전통의학육성을 외치며 일원화를 외면하는 시대역행정책을 쓰고 있다. 그리하여 의료후진국 레테르가 붙어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의학계만은 현대의학의 정상을 향해 달리고 있으니 너무나 장한 일이다.

1954년 12월 23일 하버드대학 부속 Peter Bent Brigham 병원에서 닥터 Merrill(내과)과 닥터 Murry(외과)가 주도한 팀에 의해 역사상 최초의 장기이식(신장이식)이 성공한지 50주년이 되었으며, 집도자인 Murry박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도 노벨의학상의 영광을 얻었다. 당시 23세 남자 신부전 환자 R은 그의 쌍둥이로부터 얻은 신장을 이식받았으며, 그 후 8년간 생존했었다.

그리고 35년 이전(1969년) 나후한 중진국 한국에서도 민병석교수(고인)와 같은 훌륭한 의학자가 있어, 한국의학세계화를 위한 그의 집념이 결실을 맺어 그가 주도한 가톨릭의대 신장이식

팀에서 한국최초로 신장이식의 개가를 올렸던 것이다. 당시 민선생이보낸 편지와 보고논문을 필자는 불의에 가신 고인을 추모하는 뜻으로 아직 간직하고 있다(*주). <*주: 주치의로서 대통령 수행도중 1983년 10월 9일 버마서 순국하셨다. 보내 주신 논문은 Renal Transplantation in Korea(대한의사협회지 12: 983, 1969.)이며, 오래전 필자와 함께 쓴 감상선논문(대한의사협회지 9: 165, 1966)도 동봉하셨다.

그리고 장기이식에 동반하는 뇌사문 제수용, 장기기증법통과, 생물리학윤리 문제 등 여러 사회적 이슈도 하나하나 마무리 짓게 된 사실도 특기할만하다 (참조: 의협신문 필자칼럼 3편- '장기이식의 문제점과 윤리논쟁' 2001년 12월 20일부터 3회).

한국의학자 업적에 희망 걸고 이제 장기이식에 남은 숙제는 장기부족 해결과 아울러 거부반응 없는 이

기부족 때문에 대기상태에 있는 환자가 4배 이상이고, 대기 중 사망환자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일부나마 장기부족 문제해결을 해보려고 몇 년 전 미국에서 장기 급전거래 허용문제가 거론됐지만, AMA윤리 위규제에서 장기매매를 엄중 반대하고 있다.

현재 장기이식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는 장기부족해결이다. 앞서 언급한 장기이식의 개척자며 노벨수상자인 닥터 Murry는 장기이식 50주년을 맞은 현지점에서 '장기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 평하고 있다. 80여세 백발노인이 된 그는 "만일 내가 다시 앞으로 50년간 더 일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장기제조 연구분야에 종사할 것이다. 줄기세포연구가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고도 남는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현황에서 황우석 교수의 인간장기복제연구와 김윤범 교수의 무균 폐지연구는 장차 거부반응 없는 장기를 무진장 제공할 것이 기대된다.

민병석 선생이 씨 뿌려 개척한 한국 장기이식이 결실되어 한국은 세계 선진국의학과 어깨를 겨누게 되고, 특히 장기부족해결이라는 점에서 인류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음은 우리의 가장 큰 자량이라 하겠다.

장기이식 50주년을 맞이하여 이상과 같이 한국의학계의 일면을 회고하고 전망해 보았다.

자료 출처: OPTN 12/17/2004

한국의학의 자랑

김 일 훈 (57)

민선생이 길을 터놓은 한국의 장기이식은 그 후 우수한 후학들에 계승되어 무성히 자라나 일본을 앞선다는 소식이고, 해외에서 첨단의학을 익힌 수많은 후배 의학과 민선생처럼 연구에 헌신한 의학자들이 있음으로서 한국의학은 지금 세계 현대의학의 동반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1963년 1월 콜로라도대학에서 닥터 Starzl의 집도로 신장이식 받은 38세 청년은 지금 80세 노인이 되었으나 아직도 신장의 정상기능을 갖고 무사하며, 이 케이스가 현재 신장이식 최장 생존기록(42년)이다.

닥터 Starzl는 42년 전 상황을 회고하면서 "의학모습이 오늘날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 변화하리라고는, 그때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으니 꿈같은 이야기다"고 감격시감을 피력한바 있다. 장기이식 50주년을 맞은 현대의학은 의과수술과 마취기술과 신약개발 그리고 화학요법치료와 중환자 케어 등 모든 전문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한 결과, 이식성공률이 완벽에 가까워지고 환자 수명연장과 QOL(삶의 질)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주변의 약조건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한 민선생이 살아있었다면, 같은 말을 했을 줄 안다.

상적인 장기를 얻는 일이다. 미국의 UNOS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 장기분배연합네트워크) 보고에 의하면, 1982년 이래 현재까지 총 416,457명에게 각 기관 장기이식(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소장)을 성공시켜 새 생명을 부여했다는 통계다. 이처럼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 나쁜 소식도 있다. 표에서 보듯 현재 미국서 장기이식을 원하는 등록대기자는 총 87,321명인데 비해, 2004년도(9개월간)에 실제 장기이식 시행건수는 20,303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2004년도 9개월간에 제공받은 장기 숫자는 10,603이다.

2004년 이식수술 받은 자에 비해 장

표1: 2004년 11월 현재 장기이식등록 대기자 수

All	87,321
Kidney	60,356
Pancreas	1,659
Kidney/Pancreas	2,440
Liver	17,368
Intestine	195
Heart	3,309
Lung	3,919
Heart/Lung	171

표2: 2004년 1월~9월 장기이식시행 수

Total	20,303
Deceased Donor	15,023
Living Donor	5,280

표3: 2004년 1월~9월 장기제공 수

Total	10,603
Deceased Donor	5,327
Living Donor	5,276

TSUNAMI 희생자 영혼들 앞에

이 한 중(65)

십오만명의 Tsunami 희생자들,
 나의 형제 자매,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손자, 내 손녀들,
 그리고 내 부모님들이여,
 그렇게도 삶을 즐기며 활기차고 행복했던 그들이여,
 그렇게도 믿었던 우리의 Mother Earth,
 그 분의 큰 트림 한번에 일어난 몇개의 큰 파도때문에,
 당신들은 쉼 물결에 쓸려간 개미들처럼 가 버렸나이다.
 가 버린 당신들 하나 하나와 이같이 여윌것 펜을 든 나 자신,
 창조주 앞에는 파리나 개미, 모래알같은 존재들,
 그러나 우리 하나 하나는, 저 우주의 저 많은 별들,
 Galaxy들을 머리에 안고 살아왔고,
 창조주 의식의 조그마를 서로 나누어 지니고 살아왔던
 그 분의 피조물들,
 아, 나는 묻습니다.
 그 분께 정말 답답해서 묻습니다.
 Hubble 망원경을 통해서 저 방대한 우주를 내다보면서,
 그 분을 찾아 해맙니다. 정말 답답해서 그 분을 찾습니다.
 태양의 빛을 타고, 수백년, 수백만년이 걸리는 거리라도,
 저 개미 한 마리가 태평양 가운데서 해매는 것처럼,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그 분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답답해서 그 분께 묻겠습니다.
 하루 대낮에, 해가 짙짙내리는 좋은 날씨에, 느닷없이 나타난,
 태산같은 물살에 실려 가버린 당신들을 위해서,
 그 무서운 거센파도 속에서도,
 그래도 사랑하는 형과 동생, 누이를, 꼭 껴안고
 잠들은 그 어린애들을 위해서라도,
 어린아기를 나무꼭대기에 얹혀 살리고 자기는 사라져버린,
 그 아기의 엄마를 위해서라도,
 수 많은 장래의 꿈들을 속삭이던, 그 젊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라도,
 오, 저 창공에 별들과 같이 끝없는 당신들의 사연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꼭 묻겠습니다. 나는 그 분께 꼭 묻겠습니다.
 당신들의 그 아름다운 영혼들을 위해서 꼭 묻겠습니다.

당신들의 몸둥이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썩어가고,
 뒤에 남은 우리들은 그저 어리둥절, 넋을 잃은채,
 당신들 하나 하나를 찾아 해매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수만리 떨어져, 내 편안한 거실에서,
 당신들의 처참한 몸둥이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매일매일 보고,
 그리고 당신들 하나 하나의 사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물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고 묻습니다. 왜? 왜?
 그리고 나는 인터넷에 매달려,
 Hubble 망원경을 통해, 저 많은 별들, 저 많은 Galaxy들
 그리고 저 아름다운 Nebula들이 산재해 있는,
 저 허공을 내다보고 외쳐봅니다.
 아무 말 없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산울림도 없는 저 허공을 내다보고 외쳐봅니다.
 당신은 어디 계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시냐고,
 이 조그마한, 우리의 천국 Mother Earth는 잊어버리셨냐고
 외쳐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귀를 기울여봅니다.
 저 끝없는 허공, echo도 없는 허공, 오직 답답합니다.
 십오만명의 당신들의 아름다운 영혼들을 한 순간에 몰고간,
 그 분의 의도를 알고 싶습니다.
 오! 오직 답답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분을 찾고, 그 분께 묻겠습니다.
 어찌된 일 이냐고 묻겠습니다. 그 분의 뜻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산 울림도 없는 저 방대한 허공을 향하여, 외치다, 외치다, 지쳐버린 나,
 어느새 폭발하던 이 심장도, 침묵으로 가득 채워지고,
 이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생각하고 당신들의 아름다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그 분을 만나시면 나 대신,
 그 분에게 물어 봐 달라고요.
 안녕히들 가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민석(Eugene)에게



김명자(오대요 62년)

어디엔가 너의 짝이 기다리고 있다고 간절히 믿고 있었지만, 주위에는 모든 조건을 다 잘 갖추고 있는 젊은 노총각, 노 처녀들이 수두룩하고, 어떤 경우는 결혼을 앞두고 인생을 보내는 것을 많이 보기에 내가 사회 학자였다면 왜 그런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지 조사하고 연구해 보았을 것이다. 미국 사회 혹은 현대사회의 전체적인 경향인 듯 하지만, 특히 여기서 자란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 미혼이 더 많은 것 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편견이기를 바란다.

드디어 너는 일년 전 뉴욕의 어떤 financial seminar에서 좋은 아가씨를 만났고, 몇일 후에 만사를 제쳐놓고 LA에서 뉴욕으로 미애를 만나러 간다기에 이번엔야 말로 배필을 찾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 그 후 뻔질나게 금요일 밤마다 red eye로 대륙을 건너다녔지. 5월 9일 서울 워커 힐에서의 약혼식에서 이미 3년 후배이신 미애의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들을 만나 뵈었기에 모든 것들이 마음 편했다.

우리는 뉴욕 비행장에 도착하면서부터 리무진의 대접을 받았고, 16명이 탈 수 있는 크나 큰 차 뒷 좌석에 들어 앉아 서로 쳐다 보면서 웃기만 했다. 결혼식날 토요일 9월 25일은 나무랄데 없는 청명하고 유쾌한 가을 날씨였고, 록펠러가 지었다는 리버사이드 교회는 정말 아름다웠으며 멋있는 결혼이었다. 촛불이 같이 점화되지 않아 너희들은 진땀을 흘렸겠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결합이 되었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겠지. 교회 밖의 공원에서 사진을 찍는 동안 손님들은 대기하고 있던 배스를 타고 브롱스의 식물원으로 갔고, 그 곳에서의 리셉션은 특히 더 재미있었다. 주위는 물론 경치가 좋았고 큰 방의 양쪽으로 차려놓은 drink table과 그 옆에서 즉석으로 만들어 주는 chef들의 hors d'oeuvres들, 쟁반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권유하는 음식들은 처음 먹어 보는 것들이 많았다. 오랜만에 다시 보는 너의 하버드 친구들, 동경, 홍콩, 서울 등지에서 와 준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LA의 본사에서 온 큰 Boss와 동료들, 가깝고 먼 곳에서 참석해 준 친척들, 우리 오마하의 친구들과 뉴욕 주위에 살고 있는 62년 의과대학 동창들, 모두가 빼 놓을 수 없는 고마운 분들이 참석해 주셨기에 그 결혼은 더욱 훌륭하게 덧 보였던 것 같다. 더군다나 사돈인 닥터 김건언(65)의 손님들 중에는 우리의 친구도 있어서 선 후배의 엄함이 더 즐거움을 가해 주는 요소가 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sit down dinner가 준비되었다고 알렸고, 우리는 큰 hall로 나가서 나란히 서서 접근해 오는 여러 손님들과 한 사람씩 인사를 나누었으며, 옆 방으로 들어간 축하객들은 제자리로 찾아가 앉았다. 모두들 리셉션에서 너무나도 많이 먹고 마셔서, 앉기는 했지만 더 이상 먹을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곧 라이브 밴드의 음악이 나오고 신랑 신부가 먼저 댄스를 한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었고, 다시 제 자리에 돌아가지 않았을 때는 애퍼타이저가 나오고 있었다. 그 집시를 비우기가 바쁘게 또 다시 음악이 나왔고, 춤 추는 마루가 비좁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었는데, 아마 나처럼 계속 나올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그나마 운동이 필요하다는 무의식 속에서의 이유도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엄마의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내 아들과 춤을 추었는데, 너무나 감개 무량하고생각나는 것이 많아 나는 말없이 조용했던 것인데, 아들은 내가 우는 것으로 알았는지 "Mama, Don't cry. I love you." 하지 않는가. 이때 나의 마음은 1967년 8월 우리의 결혼식으로 되돌아 가고 있었다. 1966년 졸업반 때 미국엘 간다는 의로 장교와 교제를 했는데, 그 때 너의 아빠야말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금요일 밤마다 완행 열차를 타고 나를 보러 왔었다. 6개월 후 우리는 약혼을 했고 약혼자는 혼자서 미국으로 떠났다. 일년 뒤 나는 약혼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기 위해 보스턴으로 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지상의 천국으로 알고 있었고, 여기서는 모든 꿈을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벽차 있었다. 그 당시 서울에서는 4층 건물 미도파가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국가의 GNP가 한 사람 당 200달러가 넘을까 말까 하던 몹시도 가난한 나라였다. 정부에서 외국에 가져 가라고 허락한 금액은 50달러 이었는데, 몰래라도 동대문 시장에서 더 비싸게 주고 바꾸어 갈 수는 있었지만 그럴 형편도 못 되었다. 그나마 동경에서 갈아 탈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조그마한 손에 들구슬 가방이 여짜나 예뻐 보이던지 10달러를 주고 샀다.

하루에 네 다섯 대의 비행기가 뜨던 김포 국제 공항을 떠날 때 "그래 미국 가서 잘살 살아라." 하며 돌아서서 우시던 가여운 우리 아버지---. 길고도 긴 비행 끝에 내린 시카고 비행장에 내렸을 때는 너무나도 큰 규모와 알아듣지도 못하는 서투른 영어에 입도 벌려지지 않았다. 열심히 영어 회화 배운답시고 회화책을 끼고 YWCA로 들락거리던 자신이 우스꽝스러웠다. NWA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TWA 게이트를 찾아서 비행기를 놓칠세라 뛰어가던 나는 지금 생각해 보아도 소위 일류 대학을 나왔다고 말하기엔 창피한 아무것도 모르는 촌뜨기였다. 비행기에서의 첫 번 식사에 흥분했던 것과는 달리 세 번째 부터는 느끼한 냄새가 났고 밥과 김치 생각이 간절했다.

일요일 오후에 30여명이 보스턴 대학 Robinson Chapel의 한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우리는 알지도 못하던 교인들과 보스턴 주변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던 친구들을 모시고 결혼을 했다. 한국을 떠날 때 웨딩드레스를 동대문 시장에서 사왔으나 fitting이라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못했다. 약혼자는 반지 값을 보냈지만 시집에서는 해주지 않았고, 결혼 반지가 없어서 내가 잠깐 다니던 장왕사란 출판사의 직원들이 푼 돈을 모아 이별 선물로 준 조그마한 진주 반지로 대치를 했으며, 보스턴 한인의사회의 10 여명 회원 중 가장 연세가 많은 닥터 안(참수)이 나를 데리고 aisle을 걸어 들어가는 내 아버지 노릇을 해 주셨다.

Spring Field, Worcester, 등지의 먼 곳에서 칠 팔 명의 동기들이 결혼 전날 우리를 축하 해주러 아파트로 몰려 들었으니, 나는 없는 요리 솜씨와 수저 쟁반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던 처지에서도 저녁 대접을 하였고, (그때 종이 접시라는 것이 있었는지? 있었더라도 몰랐겠지만.) 나는 구석 작은 침실에서 친구의 약혼녀와 잤고, 남자들은 큰 침실과 응접실에서 놀음을 하다가 소파와 걸상에서 잠깐 눈을 붙였던 것 같았다. 그 다음 결혼식 날에도 토스트와 주스 정도의 간단

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밥과 만두국 등으로 손님 대접을 했으며, 설거지하고 나서 내 손으로 화장하고 머리도 했으나, 웨딩드레스를 대릴때는 쏟아져 흐르는 눈물로 다리던 옷에는 얼룩이지고, 곧 식장으로 가야할 신부의 울음은 그칠줄을 몰랐다. 김광원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은 그런대로 잘 이루어졌다. 선배님들의 권고에 따라 앨범도 정식으로 만들었고, 샌드위치와 케익과 펀치로 손님들을 대접했는데, 미세스 조(정현) 말씀에 의하면 샌드위치가 있는 리셉션은 잘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차도 없을때라 배스를 타고 뉴햄프셔에 있는 워싱턴 마운틴으로 가서 cograil을 타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온 세상이 내 것인양 눈 앞에 펼쳐진 자연을 만끽 하면서 즐거워 했다. 숲으로 우거진 새로운 환경, 낯설은 백인들, 처음 먹어보는 피자라는 음식과 폭잡이라는 돼지고기 등이 별미였다. 즐거웠던 며칠 간의 신혼 여행 후 다시 아파트로 돌아 왔을때는, 한국에서 각각 하나씩 들고 온 가방 2개와 2주에 125달러를 받는 meager한 레지던트 월급과, 청소를 하다가 설합에서 나타난 닥터 리의 펀치로 알았지만 결혼하기 위해서 끈 기한이 없는 친구의 돈 500달러 빛이 있을 뿐이었다. 125달러짜리 check를 뒤에 사인해서 집 주인에게 주면 현찰 5달러를 되돌려 받았고, 그 다음 2주 후에 받는 125달러를 합쳐서 130달러 가지고 한 달을 살았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빛을 갚았고, 시집에 돈을 보냈던지 모르게 기적 같이 느껴진다. 이 때의 암담한 처지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남편은 그 힘든 레지던트의 시간을 쪼개 moonlight를 했고, 나는 웨이트레스와 바느질 등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인데, 이미 좋은 집까지 장만한 네가 자랑스럽고, envy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정말 더 이상 바랄수 없을 정도로 멋진 출발을 한 너희들... 거의 비슷한 배경에서 자랐고 하는 일들까지 같은 계통이니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보살필수 있겠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으로도 튼튼한 기초를 잡아 놓았으니, 앞으로는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성취해 나가길 바란다. 혼자서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 할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협조 해 가면서 할수 있는 결과는 무한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웨이트레스를 하고 seamstress해 가면서도 아들 딸을 잘 길러서 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잘 살아 보겠다는 신념은 그리운 내 어머님과 아버님에 대한 무언의 약속이었고, 또한 내 삶의 목표였다. 9살에 엄마 없이 아빠따라 천리길 머나 먼 길을 피난와서 자리면서 결립되었던 모성애를 모두 너와 주원(Clara)에게 쏟았는데, 내 인생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너희들은 항상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 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의무가 가장 크겠지만, 이제 너는 좋은 배필을 만났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을 내다보고 느끼고 행동 하기 바란다. 항상 남을 돕고 한없이 많은 사회의 문제점을 한 두 가지씩 찾아서 풀어 나가려고 노력을 할 때, 더욱 더 큰 행복을 얻을수가 있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되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너는 많은 자선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라고 나의 체험으로 배워서 알고 있다.

미애와 민석!
Please, remember we are so privileged living in this country at this moment.
성경의 말씀대로 법사에 감사하면서 몸과 맘이 건강한 행복한 삶을 오래 오래 같이 누리기를 이 엄마는 간절히 기도드린다.
With all my love,
Mom

노벨상 냄새

오대희 (64)

2004년 노벨생리 및 의학상 (노벨의 화학상)은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Richard Axel 교수(58세)와 씨아를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 센터 Linda Buck(57세)교수가 공동으로 수상하였다. 이들은 사람의 코가 냄새를 어떻게 구별하고 기억하는지 그 비밀의 실마리를 풀어 헤치는데 성공하여 신비로운 노벨상 냄새를 영원히 간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 영광은 1991년 당시 컬럼비아 대학 하워드 휴스연구소 <리처드 액슬> 교수와 박사과정 펠로우 <린다 벅>이 무려 1만 가지가 넘는 냄새를 따로 따로 분별할 수 있는 후각 세포의 유전인자 그룹을 발견하여 전문의학잡지 'Cell'에 발표하면서 움트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사람의 코에서 350 종류의 후각감지인자 'Olfactory receptors'를 인체 유전인자의 3%에 해당-축출하여 후각 유전인자 그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성공하였다. 고도로 세분된 후각세포의 냄새감지인자는 알파 26자를 모두 사용하여 이름을 붙여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감지인자마다 뇌의 후각센터에 각각 다른 신호를 직접 전달하면 뇌가 냄새를 구별하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리처드 액슬>이 곤충의 냄새감지기능을 연구하고 <린다 벅>은 단 맛과 쓴 맛을 구별하는 미각세포의 정체를 밝혀 내었다.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기할 일은 <린다 벅>은 미국여성으로서 두 번째 노벨의학상 수상자가 되었다. 첫 번째는 Gertrude B. Elion인데 당시 웰컴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의약품의 치료원리를 밝혀내어 1988년 노벨의학상을 받았다. (3명 공동 수상)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는 냄새 얘기를 실험실 아닌 안방으로 옮겨서 어수룩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 냄새를 연구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노벨상을 받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곤충과 조류, 동물이 사람 보다 냄새감각이 훨씬 더 예민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나 어떻게 사람보다 냄새를 더 잘 맡을 수 있는 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나왔다. 냄새를 맡는 것은 개나 고양이가 하는 짓이지 사람이 볼품없이 코를 내밀고 다닐 수는 없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보고(시각), 듣고(청각), 만지고(촉각) 하는 데에 이상이 생기면 당장 의사를 찾아가지만 냄새나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도 코가 막혔다거나 입맛이 변했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전문의사를 찾아가는 일은 드물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20만명 이상이 여러가지 사고에 의한 뇌손상과 기타 질병에 의한 후각신경장애로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국립 농아자 연구원 발표.) 냄새를 제대로 맡을 수가 없는 사람은 정상인보다 갑질이 나 더 많은 실수를 하고 그 만큼 사고를 더 일으키게 된다. 예를들면 상한 음식냄새나 유독성 가스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사고이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다시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법이나 약품을 개발하는데 '냄새의 신비'를 파헤친 획기적 연구업적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분야의 연구가 계속되어 21세기 의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암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질병을 예방, 진단, 치료할 수 있게 된다면 그야말로 노벨의 뜻을 따라 인류의 복지에 이바지하는 일이다.

紙上法醫

돈으로도 어쩔 수 없는 딸 자식

노용면(55)

39세의 피터(Peter Krasnigi)는 오랫동안 주택건축회사의 노동자로 일해 왔었는데, 하루는 뉴욕 주에서 시행하는 룯도(lotto)에 당첨되어, 갑자기 1,200만 불(12 million dollars)부자가 되었다. 그는 당장에 집 몇채를 구입했다. 그가 최근까지 건축일을 돕고 있던 집도 사서 자신이 그곳으로 이사했고, 나머지 집들은 세를 놓았다. 부동산 영업을 시작한 것이다. 뉴욕 주 북쪽 시골에 있는 큰 집을 자기와 같이 노동자로 일하던 밀(Mihil Camaj)에게 팔았다. 피터와 밀은 어렸을 때 알바니아(Albania)에서 이민왔는데, 서로가 먼 친척사이이기도 했다. 이 집은 언덕 위에 있었는데, 침실이 열개 있었고 마당은 값진 조각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 건물이 어떻게 거래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몇 없었다. 이 두 사람이 몇년전까지는 친한 사이였는데, 근래에 와서 밀이 피터에게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그들 사이가 좁 나빠졌다 는 소문도 있었다.

그런데 근래에 알려진 소식들에 의하면, 피터가 밀의 부인인 라지사(Razisa)와 오랫동안 연정을 맺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밀이 건축회사의 일로 여행을 간 사이면 그랬다는 것이다. 피터는 라지사의 오빠와 초등학교 동기였다. 라지사에겐 딸이 둘 있었는데, 피터가 주장하기를 그중 네살짜리가 자기 아이라고 했다. 피터 자신에겐 성장한 아이 셋이 있었다. 5년전 라지사가 임신했을 때, 피터가 그녀의 양막천자(amniocentesis) 표본과 자기 혈액을 비교하는 DNA 검사를 비밀리에 의뢰했다. 그 결과가 99.99% 일치였다. 검사를 의뢰할 때는 그녀의 진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익명을 썼다. 라지사는 피터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결국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피터가 제공하는 풍부한 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가 룯도에 당첨된 후부터는 자기 딸을 위한 돈이라면서 매달 2,000불씩 그녀에게 보내왔다.

피터가 그 딸 아이를 자기가 기르려고 노력한 끝에, 자기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에게 도움을 부탁했다. 그리하여 신부가 밀의 부모를 찾아가 타협을 해 주기를 의뢰했는데, 가족들이 그의 제안을 완강히 반대했다. 피터가 성당

에다 거액의 돈을 기부한 결과로 있는 일이니, 그 신부에게 중립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후엔 피터가 직접 밀의 가족을 찾아가 탄원을 했다. 그들이 원한다면 거액의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그럴때면 신부는 방구석에 앉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 밀은 몹시 화가 나서 피터를 쫓아내면서, 그 아이가 크면 자기가 그 애를 강간하여 복수하겠다고 했다. 피터가 동네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청했으나, 경찰은 법적 서류가 없다면 사건에 관여하기를 거부했다.

드디어 밀의 가족이 모임을 가졌다. 라지사가 피터와의 연정 관계는 승인했지만, 문제의 아이가 그의 딸이라는 것은 부인했다. 밀의 아버지인 도드(Dod Camaj)가 알바니아에서 15세기 때 생긴 행실법 카눈(the Kanun, Kahnnoon이라 발음함)을 인용하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설교를 했다. 그리고는 라지사가 그녀의 죄를 씻고 가족의 일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오로지 방법은, 그녀가 피터를 자기 손으로 죽이든 것이라 했다. 그야말로 최후통고였다. 도드는 규율을 잘 지키는 전형적인 알바니아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많은 알바니아인들은 그 오래된 규칙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데, 무슨 사건이 생길 때면, 법적 도움을 청하지 않고 제 자신이 그것을 해결해 나간다. 알바니아인들이 경멸하는 불법 도박자들은 알바니아 폭도에 의해 지배되고 보호를 받고 있다. 끝내 라지사가 그 행실법을 지키겠다고 승락했다. 그랬더니 도드가 방구석에 가서, 천정위에 숨겨 두었던 권총을 꺼내 그것을 라지사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그녀가 그를 살해할 때는, 가족 모두가 그녀를 뒤에서 보호할 터이니 염려말라고 했다.

그런지 며칠 후, 피터가 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자기가 그 집에 찾아가도 되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좋다고 했다. 그것은 10월 초였는데, 피터의 차가 도착한 저녁 8시30분엔 밖이 좀 어두웠다. 피터가 주차장 위 끝까지 올라간 후, 되돌아 아랫쪽으로 내려와 거실 앞에도 차를 멎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려할 때, 밀의 가족 여러 사람이 건물 입구들 앞에서 있음을 알아챘다. 자기가 매복당하는 유혹속에 있음을 즉각적으로 느꼈다. 그는 차속에 숨겨 두었던 권총을 꺼내 호주

머니에 넣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니, 도드가 다가왔다. 그의 뒤에는 라지사가 따라오고 있었다. 도드가 피터를 반갑게 껴안는 자세를 취하던니, 곧 그의 셔츠를 추켜 올리고 라지사에게 눈 신호를 보냈다. 라지사는 피터의 가슴에 총을 쏘고, 그 총을 땅에 팽개쳤다. 그러니 도드가 그 총을 잡으려고 허리를 굽혔다. 그것을 본 피터는 총을 꺼내어 열번 발사했다. 도드와 라지사가 총에 맞아 쓰러졌다. 피터는 곧 차를 타고 인근 경찰서에 가. 언덕에 있는 집에서 사고가 생겨 그집 식구 두 사람과 자기가 총에 맞았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밀의 가족을 신문한 후에 피터를 체포했다. 신기하게도 피터가 총에 맞은데는 심장에서 불과 2.5cm 오른쪽으로 떨어진 가슴부분 이었는데, 탄환이 흉강을 지나 소장과 담낭밖을 스친 후, 요추(척추의 허리 부분)에 박혔다. 척수에는 아무 손상이 없었다. 병원에서 퇴원하자, 그는 두 사람을 살해한 죄로 구속되었다. 판사가 200만 불의 보석금을 내면 석방하겠다고 하니, 피터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 이유인즉, 첫째로 그가 밖에 나가면 자기 신변이 위험할 것이라 생각했고, 둘째로 그가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돈이 많은 이자를 벌고 있는데 그것을 다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변호팀이 나의 도움을 청해 왔다. 이상에 적힌 내용들을 말하면서, 이 사건은 자기방어의 케이스인 듯 하니 도와달라고 했다.

라지사의 부검 기록을 보니, 그녀가 총에 두 발 맞았고, 심장과 뇌에 조직 파괴가 심했다. 둘 다 근접 총창은 아니었다. 상처의 정도로 보아, 그녀가 총에 맞은 후 피터를 쏘았을 가능성은 없었다. 그녀가 먼저 쏜 것이 분명했다.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수사관이 인근 사람들을 만났는데, 언덕 밑에 거주하는 젊은 부부가 말하기를 그날 저녁 총소리 한방이 처음 들렸고 그후 약 5초만에 연거퍼 총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도드는 총에 세 발 맞았었다. 부검 때 찍은 사진을 보니, 그의 왼쪽 팔에 총탄가루가 짐작되어 있었는데, 모양이 삼각형이고 그 모퉁이가 손바닥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견은 라지사가 총을 쏠 때, 도드가 피터의 셔츠를 쳐 올리고 있었고, 총탄이 그의 팔 곁을 스치고 지나갔다는 증거일 수 있었다. 피터의 셔츠를 볼 수 있었으면 그 설명이 더 쉬웠을 것이다.

사고 현장을 조사했다. 피터가 10개의 총탄을 여기 저기에 발사했음을 알 수 있었다. 거실문과 유리창에 있는 구멍들을 검사하니 그 모두가 밖에서 쏜 총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경찰 과학수사실을 찾았다. 그들이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가지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터가 입었던 셔츠가 안 보였다. 그 이유를 물으니, 자기네는 그런 것을 받은 바 없으니, 피터가 입원했던 병원에 알아보라고 했다. 병원에 연락하니, 자기네는 그런 것을 보관한 바 없다고 했다. 그 셔츠에서 가슴에 맞은 총창에 해당하는 구멍을 찾을 수 없다면, 도드가 그것을 추켜 올렸다는 피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자기방어의 설을 지탱했을 것이다.

나의 친구인 이름난 범죄학 전문가(criminologist)에게, 자기방어를 하는 자가 어떻게 총을 열번이나 쏠 수 있는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snake syndrome이라 했다. 뱀이 달려들 때, 그것을 칼로 한번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며, 뱀이 죽은 후에도 계속 칼로 찌른다고 했다. 그러니 피터가 자기방어를 하기 위해 그렇게 여러번 총을 쏘았다고 했다.

내가 유치소에 있는 피터를 두번 찾았다. 긴 대화를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를 강조했다. 라지사에 대한 애정을 토로했다. 그가 내게 속삭이는 말로 "그녀는 나의 영적 친구였습니다. 참 보고싶어요"라고 했다. ("She was my soul mate. I miss her very much.")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가 배심원들에게 강조하기를, 피터는 돈만 있으면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아는 인물이며, 아이를 납치하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열번이나 총을 쏘았다고 했다. 그리고는 39명의 증인을 불러다가 자기의 주장에 찬성하는 증언을 하겠끔 했다. 도드가 알바니아에서 온 이민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인물이었다는 사실도 여럿이 토로했다. 끝으로 밀이 증언하기를, 피터가 아이를 달라고 계속 협박했으며, 사고가 난 날엔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가령 그날 밤 그가 아이를 못 가지면 자기 식구 모두를 몰살하고, 마당에다 검은 기를 매달겠다고 했다고 했다. 재판이 7주일 계속되었다. 피고인측 변호사는 증인을 부르지 않기로 했다. 원래는 피터 자신을 증언케 하려 했으나, 그 계획도 취소했다.

배심원들이 결정하기를, 피터가 라지사가 쏜 총에 맞은 후 그녀를 살해한 것은 자기방어의 행위였으나, 도드를 살해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달려든 뱀 설'은 어느새 어딘가로 숨어버렸다.

참고문헌:

노용면: 총기 손상의 형태, 대한법의학회 세미나 특강, 1988년 10월.

뉴 잉글랜드 여행담

정정수(62)

뉴잉글랜드 마취학회에서는 해마다 노동절 다음 주일에 Cape Cod, Vermont, New Hampshire, Maine 등의 아름다운 휴양시설에서 학술회의를 하는데 나는 뉴잉글랜드 명소구경과 랍스터, 뉴잉글랜드 클램 등 해물을 즐기려고 아예 정회원원으로 가입했다.

금년에도 노동절에 출발하여 키네티켓에 있는 친구 윤홍철(62)부부의 아름다운 집에서 주위에 사는 동기 김석식, 박진수 부부와 더불어 뜻밖의 내 생일파티를 즐긴 감격스러운 추억도 남겼다. 다음날은 고등학교 내 동기생이고 서울법대를 나온 김진탁군의 동생 김진우(64) 하버드의대교수집에 들렀다.

Boston City sky scrape 와 골프코스가 보이는 전망좋은 캠브리지 집에서 하루를 즐기면서 하버드 대학촌도 구경했는데 땅에 누운 조그마한 화강암 돌에 Harvard Law School이라고 새겨놓고 정문입구란다. 보스톤 하버 크루즈를 타고 아름다운 보스톤 항구와 다운타운 전경을 볼때 몇 년전 National Geography에서 보스톤 하버 일대를 소개하면서 미국 지성의 중심 발원지라는 뜻에서 태양계의 지성의 요람지라고 극찬한 구절이 생각났다.

Maine Balharour에 가면 유명한 Acadia National Park가 있고 hydrofoil 쾌속정을 타면 Nova Scotia Canada를 건너가 Day Trip으로 Nova Scotia 관광도 재미있었다. 부시 대통령가족의 여름저택이 있는 Kenebunker Port 바로 옆에 있는 Cape Arundel Inn은 음식도 좋고 전망도 일품이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즐겨찾는 곳은 이제 고인이 된 찰스쿠랄트 CBS

Morning News Anchor man이 매년 즐겨 찾았다는 Booth Bay Harbor of Maine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같은 어촌 풍경과 경치와 분위기이다. (Rocktide Inn 800-762-8433)

Atlantic Avenue에 있는 Booth Bay Region Lobstermen's Co-op(1-800-996-1740)에서는 뉴잉글랜드 여러 길가에서 파는 곳과는 분위기도 다르고 정말 랍스터와 옥수수, 뉴잉글랜드 클램을 즐기는 사람은 꼭 추천한다. 라이브 랍스터를 Fed. Express로 보내준다고 선전하기에 나도 금년 부산대학교 산부인과 교수로 있다가 은퇴하고 Sexology로 동양에서 명성을 날리는 김원희교수(62)부부와 김한중부부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때 실험으로 랍스터를 주문하고 스테이크를 대접해서 즐거운 반응을 받은 것은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금년에는 메인 포트랜드 남쪽 15마일 Scarborough Port Neck 반도에 있는 Black Point Inn에서 학회를 했는데 Ocean & Bay View가 사면으로 펼쳐지고 유명한 Winslow화가의 비치 스튜디오가 있어 관람할 수 있었다.

김진우 교수와 골프도 치고 바닷가 Cliff Walk, Beach Walk도 하고 Lobster Clam Baker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회합이라 더욱 더 즐겁다. 특히 메인지역은 깨끗하고 경치도 아름다워 백인들의 은퇴지역으로 선호되어 최근 부동산값도 많이 오른다고 한다. 하버튼 뉴잉글랜드 지역은 미국문화의 시작중심지이고 여러 아름다운 어촌, 풍부한 해물, 아름다운 단풍, Lake Champlain, 헨리스크로의 Walden Pono, White Mountain, Kennedy Scandal로 유명해진 Hyannis Port등 볼거리가 많아 매년가도 싫증이 안나는 곳이다.



하버드의대 김진우교수와 함께

지난번 시계탑에 실린 민경택 선배님의 글 "미주동창회의 위기와 새로운 활로" (CSRM 준비위원회 구성건의)라는 기사를 읽고 용기를 내서 펜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 글을 읽으시고 앞으로 은퇴를 생각하시는 선배님들이 이런 여행을 하시면 보람도 있고 여러 나라를 방문하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쓴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10월에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두번째이나 집사람은 처음 나선 길이지요. 저의 집사람은 전에 애급과 남미 칠레를 따라 간적 말고는 선교지에 잘 가지 않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의학 분야의 사람이 아니니까 가서 도와줄 일이 별로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당뇨병을 가지고 있어 먹는 것도 조심을 해야하고 매일 두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사람이, 남의 나라에 가서 도와주는 거념 오히려 부담을 주면 어떻게 하냐고, 저보고 비행기표 한사람분을 아껴서 혼자만 가라고 하여 보통 저 혼자서 다니곤 했지요. 그러나 작년 4월에 제가 처음 몽골에 다녀온 후, 12월에 몽골의사 두분이 시카고를 올 기회가 있어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중 젊은 의사가 우리 부부를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고, 본국에 돌아가서 성경공부도 참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의 집사람이 몽골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따라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만에 한국을 방문하자는 얘기가 시작이 되어, 서울에서 3시간이면 갈수 있다는데 고무를 받고, 순순히 비행기표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몽골의 사정을 조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징기스칸 대왕이 전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며, 두번째로 공산국가가 되었던 나라로서,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히 크고 여간하여 남에게 굽히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그 나라는 남북한 땅을 합한 면적의 7배 반의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인구는 불과 240만명 밖에 없으니까 대부분이 빈 땅인 셈입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라마 불교를 믿는 독실한 불교국가입니다. 최근 소련에서 해방된 이후 한국과 문화를 개방하여 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비교적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드나들고 있지요. 의료선교만 해도 여름에 어떤날은 단기 의료선교팀이 300 명씩 몰려 들어서, 외국에서 약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또 허가없이 의료 활동을 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사역은 전혀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연초에 몽골의과대학 방사선과 과장인 닥터 곤칙에게 연락을 하니 좋아하며 필요한 강의를 해달라고 하여, 여름내 강의내용을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같이 갔던 Christian Medical and Dental Associations의 Medical Education International, MEI (국제 의료교육기관)에서 같은때에 몽골을 또 간다는 예정을 알고, 같은 숙소에 머물면서 같이 행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몽골에 있는 연세친선병원과도 연락이 되고 10월 2일 시카고를 떠날때는 큰 기대를 갖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계신 누님이 봄에 중풍으로 쓰러서 병원에서 입원 가료를 받고 계시므로, 비행기를 바꾸어 타기도 해야지만 일단 누님을 뵈기위해 인천에서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추석을 맞아 퇴원하시고 집에서 간병중인 누님이 많은 병세에 진전이 있어서, 부축을 받지않고도 한쪽을 저으면서도 걸을수 있는 것을 뵈고 몽골로 향할수 있었습니다.

몽골의 산에는 금방 내렸던 눈들이 덮혀 있었고, 많이 춥다고 미리 겹을 먹고 공항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공항 밖에서 기다리는 많은 친구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집사람까지 데리고 다시 자기나라를 찾아준데에

감사의 말과 포용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닥터 곤칙이 제가 올때를 맞추어서 몽골방사선과 학회를 준비하고 모두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 주어 혹시라도 못오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며, 사랑하는 몽골 아들 닥터 가나는 자신은 이틀후에 중국에서 한달간 연수를 가게되어 우리와 같이 시간을 보낼수 없게 되어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얼굴을 볼수 있게 된것을 감사하고 중

의는 그림을 보여 주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약 반시간동안 전기가 들어올 때 까지, 질문을 받고 상담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한사람도 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드디어 전기가 다시 들어와 강의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이자 마지막 날에도 계속 강의를 하고 정전이 되지 않아 예정된 시간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새로 단층활영기를 들여온 병원의 방사선과 과장과 의사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몽골에 다녀와서...



국에 가서 CAT scan하고 MRI를 잘 배워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Mika 호텔에는 MEI 팀 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팀장이 작년에 같이 사역을 한 닥터 마이크 필이라는 흥과내과 전문의인데 우리를 반기며 새로운 대원을 일일이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편안히 쉬수 있게된 것과 무사히 도착함을 감사하며 첫밤을 지내게 되어 흥분된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미국에서 같이간 대원들이 호텔의 한방에 모여서 커피, 주스와 토스트로 아침을 나누면서, 간단한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 사람은 미국 여자의사하고 소아병원에 가고, 저는 몽골의과 대학에서 미생물학을 가르키며 사역하는 닥터 박진용 선교사를 만나서, 하루 종일 준비해온 강의내용을 비디오에 녹음을 하여, 나중에 몽골말로 밑에다 번역을 해서, 몽골 의과대학생이나 레지던트 수련의들이 얼마든지 보고 혼자서 공부할수 있게, 시청각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하루 강의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힘들지만 여러 제목의 강의를 녹음, 녹화하며 첫날을 지냈습니다.

두번째날 부터 본격적인 방사선과 학회가 시작되고, 약 150명 가량의 의사들이 원형 계단 강의실을 꽉 메우고 살레이는 마음으로 그들의 학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70년 기념 학회라면서 슬라이드를 통해 그들의 역사를 알게됐고, 70년전 러시아 의사 한분이 기증한 엑스레이 기계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단층촬영기 CAT Scan 기계가 6대를 갖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축하 인사를 해달라는 영광을 받아, 작년에 왔을때 불과 전 몽골에 한대 밖에 있던 단층촬영기가 6대로 늘어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젊은 방사선과 의사들이 열심히 일하여, 한국과 미국같은 학회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는 축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열심히 모이온 교과서들을 증정하니,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학회 장서로서 귀중하게 보관하고, 대학병원에서 책임지고 잘 쓰겠다는 말을 듣고, 무거운 책들을 정말 잘 가져왔구나 하며 채 갖고 오지 못한 책들이 아쉬웠습니다.

첫날은 주로 몽골의사들의 연구논문 발표로 제가 있어봐야 몽골말을 알아 들을수 없고하여 중간에 빠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은 제게 주어진 세가지 강의를 모두 6 시간에 걸쳐 하루 종일 컴퓨터에 실린 그림들을 보여 주며 강의를 했습니다. 평소에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선배님들이야 아무것도 아니실런지 몰라도, 적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읽는 것이 직업인 제게는 하루 종일 강의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한참 열띤 강의중에 정전이 되어, 병원에서 불이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불으니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고, 수술중의 의과외사들도 잠시 전기가 다시 들어올때 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사선과의 강

홍 건(70)

한마디라도 놓칠까바 주위를 기울여 듣고 계속 강의 내용을 받아 쓰는 것이 참 대견하였습니다. 나중에 모든 순서가 끝나고 폐회식을 할때 미국에서 특별히 와서 강의를 해준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참석확인증서를 나누어 주는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매년 학회에 참석해서 연장교육을 받아야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시골 아이막(한국의 도청)에서 모두 올라와서 강의를 들었다는 것



입니다. 저같은 사람에게는 귀한 기회로 여기지 않을수 없습니다. 사진도 찍고 감사하다는 말을 개인적으로도 하며 다음을 기약하지 못하고 아쉬움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하루는 연세친선병원을 방문하고 작년에 World Medical Mission, Samaritan's Purse 에서 보내준 귀한 의료 장비들과 의료소모품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을 두눈으로 보게되고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기관에 보고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윤치순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정형외과에 가서, 미국에서 보낸 목발을 짚고 오는 환자들을 보았고, 그전에 환자가 손으로 깎아서 쓰던 목발을 보며 과연 몇시간을 걸려서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정교한 솜씨를 감탄하였습니다. 방사선과에 가서 새로 보내준 초음파 기계를 돌아보고 매일 쓰면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일은 없어도 작년에 갔다온후 World Medical Mission 에 연락을 하여 큰 콘테이너에 하나 가득 귀한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들이 도착할수 있게 된 것을 연세친선병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원장님 박돈상 장로님은 서울의대 선배님으로서 매우 머리가 숙여지는 사업을 하시고 계시며, 절대로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는 신조를 지켜, 작년에 콘테이너가 도착했을 때에도, 세관에서 내라고 한 세금을 한푼도 깎지않고 몽골국법을 준수하며 병원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참 장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 주일을 맞아 박진용 선교사님의 시무하시는 교회에서 귀한 강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렸고, 우연히 만난 친구동생의 주선으로 Mongolian International University를 찾아 가서, 점심 식사후에 신입생들 약 200명을 모인 자리에서 몽골의 장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신념이 있고 청렴한 일꾼들이 되기를 당부하는 말씀을 45 분동안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몽골의 넓은

광야에 나가서 강물이 흐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유원지 같은곳에서 게르라는 몽골천막에서 한나절을 보내며 박진용 선교사부인이 정성으로 준비한 불고기로 점심을 맛있게 들면서,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국인 Beverly라는 부인이 경영하는 고아원을 들러서 29명의 맑은 얼굴의 티없는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고, 새로운 건물을 증축중인 공사 현장을 둘러 보고, 가지고 간 장난감과 선물을 전해주고 왔습니다. 구석 구석에서 조용히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볼수 있음을 감사하고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이 헤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있는 동안 많은 몽골분들이 자기집으로 초대하고, 나중에는 사양을 하며 미안하다고 하기가 바빴습니다. 우리가 가면 좁은 아파트 방에서 사는 의사부부가 정성으로 몽골음식을 장만하고 많이 먹기를 바랐으나, 집사람은 조심스럽게 양껏 먹고, 저는 주는대로 받아 먹음으로 초대하신 분이 좋아했습니다. 저의들이 집에 도착하면 먼저 말뚝으로 시작해서 말고기 갈비에 염소우유로 만든 치즈까지 일체 몽골식 요리를 즐기고, 자기네들끼리는 보드카로 한잔 한 뒤에 몽골 기타같은 악기를 가져와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또한 학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루저녁 리셉션을 겸한 만찬이 있었는데, 저녁이 나오기 전부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파티를 하는데, 보드카로 거너하게 취한 그분들이야 재미있었지만, 배가 고프서 기다리는 우리들은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늦게나마 나온 식사를 들자마자 흥을 깨지 않도록 조심스레 파티 장소를 빠져 나왔는데, 다음날 얘기를 들으니 새벽 3시까지 춤추고 놀았다고 하여 일찍 나오기를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어느덧 몽골을 떠날 날이 다가왔고 아쉬운 작별을 하고 많은 친구들의 환송을 받으며 울란바트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지 몇일이 되지 않아 다시 몽골에서 이별을 받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시카고에서 매년 열리는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RSNA)에 두명이 오고 싶다고 하여 우리집에서 묵게하고 잘 대접하여 보냈더니, 이번에는 4명이 오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집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해놓고는 걱정이 되었는데, 막상 공항에 나가보니 5명이 도착했습니다. 한명 여자의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남편을 보러 가기 위해 학회를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비자를 받아왔으니 비행기표를 사게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수없이 5명 모두를 집으로 데리고 와 인터넷으로 제일 싼 비행기표를 구매 다시 비행장까지 데려다 주고 나머지 4명의 의사들을 매일 밥 해주고, 재워주며, 학회에 갈때는 비싼 점심을 사먹지 않게 샌드위치를 싸서 아침에는 집사람이 운전해서 컨벤션 센터 회의장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제가 일을 끝난후 데려오는 바쁜 나날을 지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도 이틀을 병원에서 휴가를 받을수 있었기에 같이 가서 하루종일 같이 지내고, 저녁에는 한국방사선학회(KRSNA) 모임에 참가해서 몽골의사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앞으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이 몽골을 방문하여 강의를 할수 있도록 연결도 시켜드렸습니다. 좁은 집에서 4명이 자면서 불편은 했겠지만, 한달 월급이 50불에서 75불을 받는 몽골의사들에게는 비싼 호텔값을 내지 않고 묵고 간다는 것은 여간 고마운 소식이 아니었지요. 떠날때에 고맙다고 하며, 돌아가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여 약속하지 않아도 좋으니 마음 편하게 나가보아 좋으면 계속 다니라고 일러 보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동안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든 손님들이 다가고 난 후에야, 금년의 몽골여행이 완전히 끝났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쉴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라고 한다.
 아침같이 이른거리는 따뜻한 봄날에 나른한 졸음을 이기지 못하다가 갑박 단꿈을 꾸고 나서 잠시 꿈인지 생인지 어리둥절 했던 기억이 여러번 있다. 영혼이 영생한다면 죽은 다음 현세의 인생이 일장춘몽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랬으면 하고 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나간 칠십년의 인생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너무 슬픈 변을 당하거나 갑자기 엄청난 행운이 찾아들면 이것이 꿈이 아닌가 싶어 자기 살을 꼬집어 본다.
 지난번 내가 직장암으로 몹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번 했다. 현재의 인생은 꿈이고 영생이라는 사후세계를 믿은 신앙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왔을 것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한다. 떠도는 나그네는 일정한 거처나 미련이 없다. 내가 만난 사람이나 사건이나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뿐 남는 것은 짧은 추억외에 아무것도 없다. 정든 사람도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내가 갖고 싶던 물건, 행복, 돈, 명예, 그 어느 것도 잡았다 싶으면 떠나가는 허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 이 세상에 진정코 내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주인이 못하고 나그네에 불과하다.
 인생은 초로와 같다고 한다. 새벽 풀잎에 맺힌 الند물 같은 이슬방울은 해가 나면 말없이 사라지니 사람들은 소리없이 세상에 왔다가 가면서 이름없는 이슬에 자기의 운명을 비유했다. 한번 피었다가 지는 꽃잎과도 같고 한번 타고 나면 연기로 사라지는 모닥불과도 같은 인생이다.
 인생은 또 고해라고 한다. 태아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울음으로 삶을 시작하는 이유를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슬프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은 배가 고플수록 음식의 소중함을 알고 괴로움을 겪어야 즐거움을 이해하겠지만 붓다가 설한 것처럼 생로병사를 고통이라는 잣대로 보면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학교, 지위 등을 위한 욕심의 노예가 되어 경쟁속에 자기를 잃는 것이 고통이다.
 좀더 차원이 높은 정신세계에 오르면 내 존재의 밑바닥에 나를 받쳐줄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는 불안과 허무의 고뇌가 기다리고 있다.
 우주라는 허공에 정처없이 떠다니는 나의 존재나 바닥이 없는 한없이 깊은 심연에 계속 가라 앉는 나의 존재의 불안과 공포가 주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자기 영적 세계의 깊이에 따라 인생은 다른 고통을 경험한다.
 인생은 도박이라고 한다. 순수하고 열렬한 사랑끝에 결혼한 부부간이라고 할지라도 살고 나서 보면 그 결혼 역시 도박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배우자가 결혼하자마자 병이나 사고로 사별할 수도 있고 신체나 정신장애가 와서 같이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으며, 세상에서 나오될 수도 있으니 결과적으로 배우자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이니 만큼 그 선택은 도박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 의사들이 미국에 건너와 자기 전공을 선택한 과정도 생각해 보면 도박이다.
 그 당시 인기가 없는 과를 택해서 나중에 크게 성공한 분도 있고, 힘든 과를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분도 있다. 학교의 선택, 친구의 선택, 투자할 주식의 선택, 자기를 치료해 줄 의사의 선택, 그 모두가 아무리 공부나 연구를 미리 한다고 해도 바른 선택을 했는지 아닌지는 신만이 아는 이상 선택에는 도박이 따른다.
 세상에서 출세나 성공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노력과 위대함은 인정하지만 그들의 운이 좋았다는 것을 부

인할 수 없고, 운이 좋았다는 것은 도박을 잘했다는 말이다.
 인생의 도박중에 종교의 선택이 가장 큰 도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인생은 너무 짧아 어느 종교가 진리인지 다 연구해본 다음 종교를 선택할 수는 없다. 설혹 긴 시간을 두고 연구한다고 해서 어느 종교가 진리인지 알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어느 종교에 깊이 들어가는 계기 혹은 동기는 대단히 복잡다양해서 사람마다 다르니 여기서 논할 바가 못되지 않는 여러 종교를 비교해서 물건 사듯이 종교를 선택할 수가 없으므로 종교

은 윤리와 도덕을 발전시켰고 일찍이 공자는 인간이 만물중에 가장 귀한 이유는 오륜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같은 희랍의 철학자들도 일찍이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도덕과 죄에 관하여 새로운 해석을 했다. 인간이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오만과 불순동으로 바로 큰 죄가 된다는 것이다. 십

회교도, 유대교도, 기독교도 등 모두 자기 종교에 신앙이 깊다면 인생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위선과 의식을 좇는 대부분의 신도들은 종교의 영향이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나는 의사로서 해부학 생화학 등 인체의 구조와 생리를 일생 공부했고 유전인자의 구조와 그 변이로 생기는 암의 발생과정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 몸안에 있는 각 세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변화를 나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내가 인생에 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인생의 실존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나 나는 먹고 여행도 하고 아이도 나서 키우고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 내 인생을 사는 주인은 나인데 인생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이다.



발길

임 낙 중(59)

의 선택이 일생을 건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교리상 내가 선택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적어둔다. 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믿게하는 은사를 베푸시는 것이지 내가 택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교리상 기독교의 선택은 도박이 아닌 것이다.
 인생은 연극이라고 한다. 인생은 누군가가 연출하는 연극이고 사람들은 각본대로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하는 내 행위의 대부분은 내가 속한 사회의 문화와 풍속에 따라서 내 생각과 관계없이 행동하여 그 위에 위선 체면 의식 등이 가미되어 나는 꼭두각시처럼 움직인다.
 내 주관이 명령하여 하는 행위는 별로 없으니 나는 내 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하나의 연기자 처럼 느낀다.
 연극에서 연기자는 막이 내리면 무대 뒤로 물러가지만 인생은 연극이 끝나면 죽음이 기다린다.
 인생은 투쟁이라고 한다. 살아가는 용기를 주기 위하여 지어낸 말인것 같다.
 적자생존의 세계에서 살아 남으려면 산다는 자체가 투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약육강식의 원리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범하고 큰 기업은 작은 기업을 삼킨다.
 좀 더 좋은 차, 집, 학교를 위하여 경쟁하는 것도 투쟁이고, 선거가 있으면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도 투쟁이다.
 자기가 믿는 종교를 전파하거나 자기의 사상을 퍼뜨리는 것도 투쟁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정신 수양과 인격 관리도 투쟁이고 음식의 절제를 포함한 건강관리도 투쟁의 일부다.
 신앙세계에서도 사탄과의 투쟁이나 욕심과의 투쟁 등 영적 투쟁을 한다. 국가간의 전쟁, 종족간의 투쟁, 계급 투쟁, 노동쟁의, 인권투쟁 등 인생은 여러 종류의 투쟁에 참여하며 산다.
 인생은 나와 내 밖의 세상과의 관계다. 내 밖의 세상에는 사람, 자연, 신 등 내가 아닌 모든 것을 포함한다.
 관계라 함은 사람과 같은 고귀한 관계도 있고 혈연과 같은 생물학적 관계도 있으며, 도덕적인 관계도 있고, 계약과 같은 법적관계까지 무한한 종류가 있다. 관계는 인연을 만들고 아무리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려고 산중에 들어가 혼자 산다해도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같은 자연과의 관계를 다 끊고 살 수는 없으며 낳아준 부모와의 출생의 인연도 끊어지지 않는 인연중의 하나다.
 인간은 너무 진화하여 혼자 살기에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몹시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며 상호 관계와 인연을 중히 여긴다.
 다른 동물들도 관계와 인연이 있겠지만 사람은 그것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관계와 인연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자에게 흘러진 예스 크리스트의 피로 인간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행위는 자연히 도덕적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닮아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도덕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사 다음에 오는 이차적인 것이라고 했다.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느라 잠시 옆길로 갔지만 인생은 나와 나 이외의 모든 사람과 자연과 우주 그리고 신과의 모든 관계의 총 집합체이다.
 인생은 뜬 구름과 같다고도 하고 인생은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간다고도 하며 그 밖에도 많은 비유가 있지만 비유는 여기서 끝을 내고 싶다.
 다음에 우리의 인생관에 영향을 미치는 몇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고 싶다.
 내가 어렸을 때 농촌에 가서 몇마지기 농사를 짓는 소농들과 지내적이었다. 어두운 새벽부터 캄캄해질 때까지 논 밭에 나가 피땀을 흘려 일을 해도 봄이되면 초근목피로 연명을 했고 쌀밥 싹떡 먹어보는 것이 제일 큰 소원이었다.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아프리카나 북한 등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철학이니 인생이니 하는 이야기들은 배부른 사람들의 사치로 들릴 것이다. 배가 너무 고프고 상태에서는 인생을 논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힘들 것이다.
 예로부터 청빈나도하는 선비도 있었지만은 예외일 뿐이고 경제가 인생관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으며 경제가 전쟁과 혁명의 원인이 된 예는 얼마든지 있다.
 세상에는 정치나 사업에 모든 것을 잊고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에 출마해서 모금 유세 등에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텔레비전 등으로 보면 침식을 잊고 흥분속에 신들린 사람처럼 움직이는데 그런 분들은 조용히 인생을 관조하는 틈이 없을 것 같다.
 인생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많지만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다.
 서출을 천대하던 시대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서출인 종조부가 한분 있었는데 아무 이유없이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서출의 계급 차별에 대한 원한이 그를 공산주의자로 만든 주요한 원인이다.
 미국에서 보는 흑인들의 일부 비정상적인 행위는 과거 인종차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천대와 압박을 받은 계층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녀간의 열애, 실연,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 꼭 가고 싶은 학교에 낙방 등도 인생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구나 한참 시끄럽던 어린아이들에 대한 신부들의 sexual abuse 등은 심한 상처를 입힐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신앙이 인생관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수 있다.
 신도에 젖은 일본인, 알라신을 믿는

회교도, 유대교도, 기독교도 등 모두 자기 종교에 신앙이 깊다면 인생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위선과 의식을 좇는 대부분의 신도들은 종교의 영향이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나는 의사로서 해부학 생화학 등 인체의 구조와 생리를 일생 공부했고 유전인자의 구조와 그 변이로 생기는 암의 발생과정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 몸안에 있는 각 세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변화를 나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내가 인생에 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인생의 실존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나 나는 먹고 여행도 하고 아이도 나서 키우고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 내 인생을 사는 주인은 나인데 인생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이다.
 다시말하면 나는 칠십년의 세월을 살았고 인생에 관하여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그 실체를 알지 못하며, 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알 도리가 없는 것이 피참조물인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계속 알려고 발버둥 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승산스님은 Compass of Zen이라는 저서에서 Meditation이란 your self를 아는 길이고 "What am I?" 라고 자신에게 깊이 묻고 "Don't know." 라는 답을 되풀이 하는 선법을 가르쳤다.
 나란 무엇인가? 나는 알 수가 없음을 반복하여 내 자신을 알아내는 혹은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선법을 가르치는는 것이다.
 또한 나같은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쓰레기일 뿐이라고 믿으면 내 이성과 사색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면 된다.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 보았고 그런 분들이 쓴 책도 더러 읽어 보았으며, 도를 통했다는 사람도 몇몇 만나 보았으니 나는 아직 인생에 관한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다.
 내가 내 의를 좇아 살기 때문에 마음이 강박한지, 내가 매사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나는 아직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나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본다.
 시간과 공간의 교차하는 한 점 위에 하나의 생각하는 존재가 있어 허공에 떠있는 한 별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주의 미아. 절대적 존재가 있다면 무엇이든 불려도 좋으니 매달리고 싶은 나약한 존재. 파랑새를 찾듯이 그 절대적 존재를 찾아 해매고 내가 얼마큼 믿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 주일이면 고박 교박 교회를 찾는 존재.
 차에 치어 내장이 다 나흔체 길가에 쓰러진 짐승을 지나치며 그와 내가 무엇이 다른지 나 혼자서 묻기도 하고, 끼마다 맛있는 음식을 찾고 때가 되면 변소를 찾아야 하며, 암이 재발하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피검사와 CT Scan을 하고 검사 결과 사형선고를 받지도 않음지 검사 앞을 보지 못하고 불안한 내 육체와, 컴퓨터, TV 등 문명의 이기에 중독이 된 존재.
 의사로서는 출세를 하지 못했지만 인생살이에서는 좀더 나은 집수를 따 보겠다고 애를 쓰는 존재, 이것이 나라는 존재다.
 이러한 존재가 죽음이라는 가장 공평한 공통분모를 등에 지고 오늘도 인생길을 걷는다.
 나는 인생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어느날 꿈에서 깨어나면 다 알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간직하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없는 이 발길이라는 노래말을 떠올리며 발길을 옮긴다.

신년사

결심 하나



편집장 김 병 석(59)

시계탑을 아끼고 응원하시는 동문 여러분께 시계탑 편집위원을 대신하여 새해 문안드립니다.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점점 더하여 하시는 일도 시원하게 정진되시길 바랍니다.

새해맞을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있다. 나도 물론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엮기 위해 결심 하나를 했고, 시계탑을 위해서도 새 기획 하나를 연구해 두었다. 거창하게 역사 운운했지만 물론 여러 편집위원들의 동의와 동창님들의 참여로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다.

미주 동창들이 대거 응모할 수 있는 문예공모를 해보고 싶다.

이는 무엇보다 질을 높이는 일을 돕기 위해 생각해 낸 일이다. 해마다 년 초에 반복하게 되어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나 계속하여 좋은 기획을 실현해 나가면서 노력할 수 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동창님들의 실력과 성의를 발휘하면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단 일년만에 이를 일은 아니지만 새해엔 나름대로 신선한 프로젝트를 메뉴에 넣어볼까 하는 것이다.

재미동창회가 생긴 이후 30년 동안 동창회의 구성적인 역할을 한 시계탑은 꾸준히 향상되어 오면서 지금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제 이 세기의 장수 추세에 따라 우리 동창회도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은퇴한 동창들이 늘어남에 따라 시계탑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좀 더 유의하고 재미있는 내용과 품격을 높여가는 일은 필연적이라고 느낀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편집인들만으로는 될 수 없다. 독자들의 충고와 이 시대의 지혜와 상식을 갖춘 투고자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몇가지 지를 편집위원들을 대신하여 제안한다.

- 1) 모든 동창과 그에 따른 가족 글이 투고되기를 바란다.
- 2) 동기 소식, 기행문 외에 각 분야의 최근 의학소식에 관한 글.
- 3) 문학적인 소질을 되살려 시, 수필, 단편소설, 희곡 등을 환영한다.
- 4) 영화, 양서 등의 감상문, 시계잡에서 읽은 글의 독후감도 좋겠다.
- 5) 기타 컴퓨터 사용법이라든가 새로운 생활 상식 또는 사회 정보 등도 유익하다.

새해에 여러 동창님들의 새 기획에 '시계탑의 질적 향상'이라는 결심 하나 보태어 연말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바란다.

을유 2005년 벽두에

편집실 동정

오자가 없는 신문을 내기 위하여, 오랫동안 진지하게 토론을 했다. 원고를 받으면 곧 인쇄소가 타자하여, 그것을 Fax로 편집위원들에게 보내자는 의견에 합의했다. 좋은 효과를 기다린다. (면)

한 해의 마지막 편집회의라 망년회의 흥겨운 기분을 견해볼까 기대했었다. 나는 정답도 편집 일도 좋았는데, 음식점의 바가지 소동에 쓴맛이 남았다. 여러 참석자들의 건투를 바라고 한해 한해 선장해 나가는 시계탑... 새해의 소망이다. (김병석)

하나의 글을 놓고 편집위원들의 찬반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같은 작품에 상반되게 반응하는 독자들의 다양성과 비례하는 것 일까 생각해 본다.

시계탑의 편집 전통은 종교적 중립(?)을 지켜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류애와 인간적인 기록은 그것이 특정한 종교의 선교물이 아닌 이상 禁烟視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景)

이번 호에는 長文의 글을 써 보낸 분들이 많았습니다. 매호 16페이지를 내면서 가능하면 모든 분들의 글을 빼놓지 않고 다 실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할수 없이 원고 도착순서대로 하다보니 몇 분의 글을 실지 못하게 되어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수 없습니다. 다음호가 4월 1일에 나오니 그때 이 분들의 글을 빼놓지 말고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寬)

농담 골목

우리들이 즐겨서 읽을 농담들을 많이 보내 주십시오. 너무 상스러운 이야기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신 원고는 편집부에서 좀 교정한 후에 실을수도 있으니 그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글이 짧으면 여러개를 함께 낼테니, 글의 제목을 붙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필자의 이름을 소개하느냐 안하느냐를 알려 주십시오.

~~~~~

구라파에서 밀입국한 70대 노인이 Social Security 혜택을 받으려고 계속 노력해 왔으나 자기의 연령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하루 그가 집에 돌아와 부인에게 말하기를 "난 오늘 S.S. 혜택을 받게 되었어."라고 했습니다. 부인인 "어떻게?" 라고 물으니. "내가 S.S. 사무실에 가서, 셔츠를 벗고 내 가슴에 있는 흰 털들을 보였더니, O.K.라고 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Disability 혜택은 못 받아요?"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런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아래 팬츠를 벗어보이면 되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면)

80대 후반 노인이 젊은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하루는 법정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처가 그를 기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판사에게, 자기는 자기 처에게 조금도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일러주기를 "당신의 처에 의하면, 당신이 그녀에게 죽은 무기(dead weapon, deadly weapon이 아니라)로 달려든다."고 했습니다. (면)

환자: 의사 선생님, 요즘 아무래도 귀가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제 방귀소리조차 잘 안들리거든요.

의사: 그래요? 그렇다면 이 알약을 식후에 2알씩 하루만 복용하세요.

환자: 아, 네. 귀가 잘 들리는 약인가요?

의사: 아닙니다. 방귀소리가 아주 크게 나는 약입니다. (이덕승)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나서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의사: 말씀드리기 괴롭습니다만 님은 위암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환자: 아니, 여보세요. 의사선생님, 어제는 나더러 체했다고 하지 않았소?

의사: 모르시는 말씀. 현대의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갑자기 쓰러진 남편을 진찰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간 의사가 몇분이 지나자 드라이버를 가져오라 했고 또 몇분이 지나자 이번에는 끌과 망치를 갖다 달라고 해서 겁에 질린 환자의 아내가 "그런데 선생님, 이 양반 어디가 탈이 났습니까?" 했더니 의사가 통명스럽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왕진가방을 열 수가 있어야죠." (이덕승)

주면 남는 수학(數學)

어떤 부잣집 노인이 아들 삼형제를 두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유산으로 소(牛) 19마리를 세아들에게 나누어 갖도록 유언을 하였다. (19마리 중 첫째 아들: 1/2, 둘째: 1/4, 셋째 1/5)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 유언대로 소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쉽지가 않았다.

첫째: 19마리의 1/2 = 9.5 마리

둘째: 19마리의 1/4 = 4.75 마리

셋째: 19마리의 1/5 = 3.8 마리

네발 달린 짐승을 이처럼 나누어 가질 수는 없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옆집 노인께서 자기 소를 한마리 보내주면서 보태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20마리의 소를 나누었다.

첫째: 20마리의 1/2 = 10마리

둘째: 20마리의 1/4 = 5마리

셋째: 20마리의 1/5 = 4마리 - 계 19마리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20마리를 가지고 나누었는데, 나누어서 보태보니 다시 한마리가 남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남은 한마리는 다시 노인에게 돌려 주었다. 주면 남는 진리가 여기에 숨어있는 것이다. 내것을 먼저 내놓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양보정신으로 풀면,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뜻밖에 쉽게 풀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 허선행 제공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42-04 Bayside Avenue, 10U A, Flushing, New York 11354

e-mail: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